

| | | | | | | | |
|-------------|--|--|-----------------|--|--|--|---|
| <p>지면안내</p> | <p>02 우리학교 홍보 잘 되고 있나? - 중·단기 계획에 의한 다양한 사업 진행</p> | <p>04 열정은 어떻게 '스펙'이 되는가 - 열정노동의 사회, 당신의 열정은 '착취' 당하고 있다.</p> | <p>5외사지 공모전</p> | <p>05 5회 사진공모전 당선작 발표 - 66명 응모한 174점 중 최우수작, 가작 등 2개 작품 선정</p> | <p>06, 07 1학기 한성대신문 되짚기 - 2011년 상반기에 한성대신문이 다룬 이슈와 나아갈 방향에 대한 고찰</p> | <p>09 반값등록금 촉발집회, 한대헌 박자는 의장 인터뷰 - "이분법적 구분보다 대학 생의 역할을 생각해달라"</p> | <p>12 꿈과 환상의 스토리텔러 윌트 디즈니 특별전 - 감동과 교훈속에 감춰진 그들의 노력</p> |
|-------------|--|--|-----------------|--|--|--|---|

삼학송

반값등록금, "안 되면 될 때까지 합니다"

반값등록금 문제가 전 국민적인 이슈로 자리 잡았다. MB정권의 꼬리를 잡으며 간간히 터지던 이 문제가 본격적인 화두로 떠오른 건 최근 광화문광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값등록금 촉제'가 촉매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김제동, 김여진 등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은 공인들이 참여하고 시민들도 응원하는 메시지를 담아 참가자들에게 치킨과 피자를 지원하고 있다. 이는 아마도 대학생 자녀를 둔 기성세대로 하여금 강한 공감대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일 것이다.

반값 등록금에 대한 요구가 천천히, 그러나 강하게 그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건 반가운 일이다.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이 상식선을 벗어났다는 건 굳이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도 없는 일이다. 그러나 이런 단순히 '대학 등록금이 비싸다' 정도로 끝날 일이 아니게 됐다.

학자금 대출로 인한 신용불량자가 4년 전 보다 약 7배가 늘었다. 졸업생들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자마자 빚쟁이가 되는 것이다. 이는 청년실업 문제, 자살률 증가 등의 문제와 이어진다. 또한 대학생을 가족으로 두고 있는 기성세대의 목을 죄고, 곧 대학생이 될 어린 학생들을 불안하게 한다. 인생의 순환구조 위에서 누구도 등록금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반값등록금은 이제 단지 대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등록금 논란이 커지자 정치권에서도 여야를 가릴 것 없이 경쟁적으로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한나라당에선 B학점 이상으로 제한해 실시하자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고, 야당에선 이를 '사이비 반값등록금'이라 비난하며 등록금액 상한제 등 또 다른 정책을 제안한다.

학생들과 시민사회 입장에서 호기심에 분명하지만, 반값등록금 이슈가 다가올 대선에 한 표라도 더 끌어 모으려는 정치인들의 먹잇감에 그치지 않는 걸 바란다.

이상미 편집국장

2학기 전체학생총회 성사될까

▲등록금 ▲적립금 ▲학생요구안▲반값 등록금 공론화 예정 정족수 1천 2백명 모집이 관건

올해 2학기에 전체학생총회(이하 학생총회)가 열릴 계획이다. 이는 지난 3월 열린 상반기 2차 대의원총회에서 논의의 안건으로 보고된 사항이다. 학생총회는 대학 학생회 총체 최고 의결기관으로 올해 상반기에 경희대, 서강대 등 서울 시내 다수 대학에서 학생총회를 성사시킨 바 있다. 이에 우리학교 학생회 측도 9월 경 학생총회를 열어 ▲등록금 ▲적립금 ▲학생요구안 ▲반값 등록금 등의 문제를 공론화시킬 예정이다.

학생총회를 성사시키기 위한 정족수를 만족시키는 일이 관건이다. 학생총회가 열리려면 전체 학생의 6분의 1이 참여해야 한다. 현재 우리 대학 총 인원은 7천1백18명으로 최소한 약 1천 2백명의 학생들이 모여야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학생회측은 적립금 사용처와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 관련 사항에 초점을 맞추었다. 특히 등심위 인원 조정과 등심위 공개 토론화를 적극적으로 주장했다. 현재 등심위 인원이 학교 측 6명, 학생 측 1명의 비율로 학생들에게

매우 불리하다는 것이다. 김태성(정통 4총학생회장)은 "현재 우리 학교는 등록금 의존율이 90%로, 등록금이 곧 학교 운영비이지만 적립금은 매년 20억~40억원이 쌓이고 있다. 그만큼 등록금이 많이 남는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적립금의 사용처에 대해 학교에 문의하면 '솔데 없는 데 쓰지 않으니 걱정마라'는 식의 답변이 전부다. 학생요구안에 대한 답

면서 역시 3분의 2가 '기획, 검토해 보겠다'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학교 측의 대응방식을 비판했다. 또한, 등록금 인상율이 2.6%임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주장한 사업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꼬집었다. 김태성 총학생회장은 "학교 측에서 학생들의 말을 우습게 여기는 상황까지 왔다. 학생총회를 열어 학생들이 어찌

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보여줄 때가 왔다"며 대의원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공개기구와 단대학생회 측에서도 피켓을 들고 무대에 올라 학생총회에 대해 알렸다. 특히 유령빈의패 3예술대학 학생회장은 대의원에 대해 "학생총회를 열기 위해 힘 써달라고 애원하고 싶지 않다. 이는 학생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다. 현실을 바꾸고 싶으면 행동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학생회 측은 하계방중 학생총회에 대한 본격적인 회의에 들어가며 결과는 8월 20일 경 예정된 확대간부수련회 확대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예상은 9월 2째주 정도로 알려졌다. 또한 학생회 측은 학생총회 로고와 날짜를 프린트한 티셔츠를 제작해 일주일 동안 정해진 날짜에 직접 입고 다니며 학생총회를 홍보할 계획이다. 학생총회 티셔츠는 대의원을 포함한 학생들에게도 배포된다.

이상미 기자 sangmi@hansung.ac.kr



▲ 지난 3일 경영학부와 행정학과 학생회가 대동제 주점 수익금으로 삼선동 경로당에서 나눔잔치를 열었다. (관련기사 2면)
(사진제공-대의협력팀)

MBC '나눔 콘서트' 논란

나눔 콘서트 유치로 학교 측과 학생회 측의 마찰 빚어져

지난 5월 11일까지 학생회 내부에서는 축제를 미루지 않고 학생이 자체적으로 행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과 축제를 미루고 MBC와 함께 행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었다. 학교 측이 축제 개막 2주전 갑자기 MBC와의 축제를 제안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태성(정통 4총학생회장)은 "축제에 들어가는 학생들의 등록금을 줄이고, 학교의 홍보를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MBC와 함께 축제를 진행하는 것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학생회는 축제를 한 주 미루는 대신 MBC에서 대동제 셋째 날 출연할 연예인 섭외 비용을 모두 지원할 것

을 조건으로 학교 측과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5천2백만 원에 달하는 예산을 대동제 첫째 날과 둘째 날에 집약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지만, 기계시스템공학과는 산업시찰 날짜와 대동제 날짜가 겹치면서 축제에 제대로 참여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런 가운데 학교가 당초 말했던 연예인 섭외가 모두 '기확안'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학교 측으로부터 급작스럽게 통보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본래 무대 행사에 참여하기로 했던 윤도현 밴드, 이은미, 김강훈 등의 가수들이 단순한 기획안이었다는 것이다. 학생회 측은 즉각적으로 반발했다. 이전까지 학생들에게 공지된 축제 계

획이 모두 거짓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18일 개최된 확대운영위원회에서 MBC 무대 행사 변경과 관련해 학교 측의 해명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송인성(대의협력팀)팀원은 "학생회가 축제를 한 주 미룬 이유는 연예인 섭외가 아니라 나눔이라는 좋은 의미의 행사를 열기 위함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취지가 훼손되지 않기를 바란다. 연예인 섭외에 대해서는 3일째 되는 날에 한 팀 정도는 학교 측에서 섭외해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행사활동이 많아 스케줄이 안 되는 연예인은 섭외해줄 수 없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또 학생들에게 축제 계획이 잘못 알려진 것에

관해서는 "학교 측에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라는 말로 일축했다.

하지만, 학교 측에서는 대동제 개최 전까지 학생들에게 축제의 스케줄에 변동과 관련해 실질적인 해명이나 공지를 하지 않았다. 단지 MBC 나눔 콘서트에 대한 공지만 이뤄졌을 뿐이다. 이에 대해서 김태성 총학생회장은 "MBC와도 계속 의견 충돌이 발생하면서, 학교에서 광고가 제대로 이루어 졌는지에 대해 살피지 못했다"고 유감을 표했다.

박종민 기자 jongmin@hansung.ac.kr

2012 졸업앨범 환불신청 안내

안녕하세요. 25대 '비상' 졸업준비위원회입니다.
졸업앨범 환불신청 대상 및 절차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 일 시 : 6월 13일~22일 평일(기간 외에는 신청을 받지 않음)
am 11:00~ pm 7:00
- 대 상 : 1. 4학년 1, 2학기가 모두 등록된 학우(8학기 재학 및 졸업자)
2. 2012 1학기 촬영자 중 졸업앨범을 취소하고 싶으신 학우
- 장 소 : 창의관 1층 졸업준비위원회
- 환불절차
 - ① 우촌관 3층 무인발급기에서 4학년 1, 2학기 교육비 납입 증명서를 출력한 후 졸업준비위원회 사무실로 제출(환불신청 시 촬영여부를 꼭 말씀해주세요)
 - ② 앨범 촬영자 중 앨범을 취소하고 싶으나 8학기가 아닌 경우, 졸업위로 방문해 구매취소 신청서를 작성 후 8학기 등록이 완료되면 개별적으로 앨범비 환불 신청
 - ※ 신청기간 이외에는 취소접수를 받지 않으니, 1학기 앨범 취소자의 경우 기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 02)760-4105(사무실)
010-4731-1933(위원장)
@jojjun25(트위터)

우리학교는 홍보활동을 안한다?

중·단기 계획에 입각한 다양한 사업 이루어지고 있어

지난 학기부터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이 눈에 띄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학교 홍보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것이 효과적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익명을 요청한 한 학생은 "솔직히 우리학교는 홍보를 안 하는 것 같다. 홍보하는 걸 본적이 없다."고 답했고, 그나마 학교 홍보 방법에 대해 알고 있는 학생들도 버스나 지하철 광고, 홍보도우미의 고등학교 방문, 방송사와 연계해 진행하는 홍보활동, 택시 기사를 대상으로 하는 생수 및 커피 증정 등 가시적인 효과가 큰 몇몇 홍보 방법들만 알고 있다. 하지만 학교는 이 외에도 다양한 마케팅 방법으로 학교를 알리고자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

우리학교 홍보 관련 업무는 크게 두 부서에서 처리하고 있다. 학교의 전체적 컨셉과 이미지 전달을 위한 활동은 대외협력팀에서, 입시생 및 현직교사를 대상으로 한 홍보 활동은 입학처에서 담당하고 있다.

송인성(대외협력팀) 팀원은 "학교 홍보의 기본적인 컨셉은 상상력이다. 얼마 전 마케팅 업체와의 회의를 통해 우리학교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했다. 그 결과, 서울에 위치하고 있으나 인지도가 낮은 학교의 약점을 극복하

기 위해서 한성대만의 확고한 UI(University Identity)정립 및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학교 홍보의 방향성에 대해 설명했다.

실제로 상상력이 강한 인재를 배출하는 대학교로 인지도 및 호감도를 증진시키는 것이 우리학교의 최종 목표인 만큼 현재 '서울의 중심, 상상력 인큐베이션'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UI 정립을 위한 홍보를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송인성 팀원은 "상상력 슬로건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있다. 예를 들어 오픈 캠퍼스 행사 시 사용하는 클렌카드에 '상상력 인큐베이터'라는 문구를 넣어 간접적이지만 지속적인 노출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교수초빙 광고에 '상상력의 무게를 아는 교수님을 모십니다.'와 같은 카피를 사용한 것도 학교의 홍보 방향성과 관련해 고민한 결과"라며 홍보 컨셉 전달을 위한 노력에 대해 이야기 했다.

학교 자체에 대한 홍보를 대외협력팀에서 진행한다면, 입시생을 유치하기 위한 홍보는 입학처에서 담당하고 있다. 입학처에서는 신입생 유치를 위해 고등학교에 우리학교 마크와 사진이 들어간 입시계시판을 제작해 설

치하는 등의 홍보도 진행하고 있고, 입학기획팀에서는 지난 5월 31일~6월 1일 양일간 입시생을 대상으로 오픈 캠퍼스 행사를 개최하기도 했다. 또한, 배치표 광고, 입시 잡지 광고, 미술계 잡지 광고, 미술계 잡지사 홈페이지 배너 광고 등의 광고 활동을 하고 있으며, 대학 탐방, 대학입학정보 박람회 등의 사업들을 통해 신입생 유치를 힘쓰고 있다.

담당 부서에서 학교 홍보를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지만, 특정 홍보 방법의 취지와 효과성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도 있다.

황정하(의대 4) 학생은 "평소 택시를 자주 이용하는 편이다. 학교 홍보 차원에서 매번 택시 기사님께 생수나 커피를 나눠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어떤 취지에서 하는 건지, 홍보에 효과가 있는 방법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승호(대외협력팀) 팀장은 "택시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타고 내린다. 수많은 사람들을 태우고, 그들과 이야기 하는 택시기사님들은 세상 돌아가는 것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다. 그런 택시기사님께 시현한 물을 제공함으로써 학교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구전효과를 볼 수 있을 것

이라고 기대한다."고 사업 취지에 대해 밝혔다.

황정하 학생은 "요즘 대학들은 사회적 기여를 통해 학교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추세인 것 같다. 홍보는 외부 홍보도 중요하지만 내부적으로 먼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택시기사님들께 음료를 제공하는 것보다, 차라리 운영업체 직원분들에게 나눠드리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더 좋은 방안인 것 같다."고 자신의 의견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조승호 팀장은 "내부구성원을 먼저 챙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우리학교 근무환경은 타 대학에 비해 좋은 편이고, 명절 때 직원분들께 작은 선의를 표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대외협력팀에서는 학교의 홍보방법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기 위해 새로운 사업 또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송인성 과장은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모니터링 요원을 모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홍보의 주 타겟이 학생들이지만 학생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 이미 홍보도우미 학생들이 활동하고 있지만, 홍보활동 자체를 돕는 것이 아니라 홍보 방법을 고민하고, 광고·홍보 컨셉트를 구성하는 데 있어 도움

이 될 만한 아이디어를 줄 수 있는 학생을 선발하고 싶은 것"이라며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송인성 팀원은 "학교 홍보에 많은 노력을 쏟기 시작한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 학교 홍보는 중·단기 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단계를 학교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인력 노출을 극대화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반성금모금, MBC 나눔 콘서트 등 각종 행사들을 통한 인력 노출 강화에 집중한 것이 사실이다."며 그 동안의 홍보 활동이 언론 홍보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그는 "아직 학교 홍보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한 것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홍보 방법에 따른 효과성에 대해 평가하거나, 홍보의 방향성 및 목표성에 대해 평가를 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추후에 양케틀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모니터링 요원을 모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홍보의 주 타겟이 학생들이지만 학생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 이미 홍보도우미 학생들이 활동하고 있지만, 홍보활동 자체를 돕는 것이 아니라 홍보 방법을 고민하고, 광고·홍보 컨셉트를 구성하는 데 있어 도움

간추린소식

2011학년도 교직원수업시연대회 진행

2011학년도 교직원수업시연대회가 지난달 25일 ELC에서 개최되었다. 교직원 수업시연대회는 교직원들의 수업의 일환으로 매년 교직원 주최로 진행된다. 참가 자격은 교과교육학 B학점 이상인 교직원과목을 이수하는 4학년 학생이다. 이 대회는 중·고등 교과과정을 중심으로 직접 수업을 시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올해는 정승훈(한국어문 4), 김하늘(한국어문 4), 홍세정(역사문화 4), 박수민(무역 4)학생이 본선에 진출하여 각각 '읽기란 무엇인가', '한국근현대사-갑신정변', '물저우룡', '바로고 정확하게 쓰기'라는 주제로 수업을 시연했다. 정승훈 학생이 최우수상, 김하늘 학생이 우수상, 홍세정, 박수민 학생이 장려상을 수상했으며 오는 7일 신재홍 교수의 연구실에서 시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대회에 참가한 서창호(지정 3)학생은 "평소 교직강의를 들었지만 수업 시연 경험이 없는데 이 자리를 통해 교생실습을 다녀온 선배들의 수업을 들은 것이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야간총학생회 셔틀버스 시범 연장 운영해

야간총학생회에서는 지난 5월 16일부터 20일까지 교내 셔틀버스를 1시간 연장한 오후 8시까지 시범 운영했다.

야간총학생회 측에 따르면 연장된 한 시간 동안 하루 평균 약 200명의 학생이 셔틀버스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혜선(법대 3)야간총학생회장은 "셔틀버스 연장 운영을 위해 사전에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점차 운영시간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며 학생식당 또한 시범 연장 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현재 학교에 셔틀버스 연장 운영을 요청하는 공문을 제출한 상태이다.

권도영(경영 3)학생은 "기존의 셔틀버스는 운행시간이 짧아 야간에 등교하기 불편했는데 시간이 연장된 버스가 있어서 한결 편했다. 앞으로는 셔틀버스의 운행시간 뿐 아니라 배차간격 시간을 조절해 운행 횟수가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영학부·행정학과 주점 수익금으로 경로잔치 열어

지난 3일 경영학부·행정학과 학생회가 삼선1동 경로당에서 대동제 주점 수익금으로 경로잔치를 열었다.

송수인(경영 3)경영학부 학생회장 "주점 수익금으로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 이번 '나눔 축제' 컨셉과 뜻을 같이 하기로 했다. 단순한 기부보다는 직접 찾아가는 봉사가 더 뜻 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학교행사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의미 있는 학생회가 되고 싶다"고 취지를 밝혔다.

라승규(행정 4)행정학과 학생회장은 "교내의 정식 봉사단체가 아닌데서 나눔을 실천하는 일을 하는 것은 처음인걸로 안다. 앞으로 더 많은 학생들이 주변에 나눔을 실천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TWO RABBITS EXHIBITION 6월 17일 까지 열려

외국인 교수 숙소 옥상에 위치한 'Two rabbit gallery'에서 오는 17일까지 교수와 학생들의 'TWO RABBITS EXHIBITION'이란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이 전시회는 디르크 플라이스먼(회화과·Dirk Fleishmann)교수와 임체익(3)삼을 수강하는 12명의 학생들이 모여 기획한 것으로 매주 2명의 학생이 영상, 설치미술, 벽화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전시한다. 또 단순히 작품을 관람만 하는 전시회에서 탐피하여 작품전시와 함께 파티를 개최, 즐길 수 있는 전시회로 기획하였다.

이 전시회를 기획한 디르크 교수는 "비록 교수와 학생의 관계이지만 나는 그들의 관계를 예술가와 예술가의 관계라 생각한다. 이 전시회는 과제나 수업이 아닌 13명의 예술가가 하는 예술"이라며 "마치 블랙홀 같이 사막한 건물 옥상이 이 활동을 통해 긍정적인 기운으로 채워 보고 싶었다"고 전했다. 누구나 관람이 가능하며 작품관람 및 파티는 매주 금요일 7시부터 시작된다.

동정란

이상원(애니메이션·제품디자인전공)교수 이 교수는 지난 4월26일 발족한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다.

사과대 사업공청회, 그 첫 발을 떼다

사회과학대(이하 사과대) 학생회는 지난달 31일 사업공청회를 열었다. 사업공청회는 올해 처음 시도되는 행사로 이번학기 사과대에서 실시한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학생들로부터 사업에 대한 의견, 건의사항을 받는 자리였다.

이번 공청회는 낙산의 매아리, 자보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참석 인원은 다소 적었다. 하지만 참석한 많은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여 원활히 행사가 진행됐다.

이 날 공청회에서는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이 자유롭게 오갔다. 중간고사 기간 중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 진행되었던 야식과 중식 사업에 대해서 오영재(행정 2)학생은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2시 보다 11시에 하는 것이 좋겠다"고 발언했다. 정진영(경영 2)학생은 "야식은 타당할 사업이지만 중식은 별로라고 생각한다. 중식은 매점이나 식당을 이용하면 해결할 수 있지 않는가"고 말했다며 송수인(경영

3)학생은 "중식사업보다는 조식사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연정(경영 2)학생은 "조식사업을 할 꺼라면 다른 부스를 만들지 말고 학생식당에서 죽을 팔 때 옆에서 같이 나누어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 등록금사업, 중고도서 판매, 공청회 사업, 소모임 지원사업, 체전, 학생총회, 예산, 모꼬지, 사업총괄, 기타의견에 대한 의견과 건의사항들이 오갔다.

사업공청회는 학생회와 거리를 좁히기 위해 기획되었다. 강범석(경제 3)사과대 학생회장은 행사개최의 계기에 대해 "학생회가 학우들과 멀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이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다"며 "2년간 학생회가 몸담으면서 학생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반영하기 보다는 집행부에서만 의견을 타진하여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좀 더 많은 이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기 위해 이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처음에는 2시에 예정되었으나 주간학생들의 의견만 들게 될 것 같아 4시로 시간을

변경하였다"며 "축제 이후 바로 기말 시험을 앞둔 상황이라 그런지 중요한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참여가 저조했던 점이 아쉽다. 홍보의 부족이라 생각하며 반성하겠다"며 아쉬움을 밝혔다.

이 행사에 참여한 김현기(경제 2)학생은 "처음 시도되는 행사임에도 잘 진행됐다. 참석한 사람들이 너무 적다는 점이 아쉽다. 학생들의 관심과 홍보 모두 부족했다"며 "사과 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회에서도 이러한 행사를 진행했으면 한다"고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이 날 행사에 참여한 모든 학생들에게는 상품으로 포스트잇이 지급되었으며, 의견을 제시한 10명에게는 문화상품권, 참석자 중 주점을 통해 5명에게는 4기가 USB가 지급되었다.

사회과학대 사업공청회는 2학기 말에 2학기 사업에 대하여 한번 더 진행될 예정이다.

박현우 기자 hyunwoo@hansung.ac.kr

적립금 사용처 언제쯤 공개되나

적립금 520억 원의 구체적인 사용처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장영우(기회협력팀) 팀장은 "적립금은 이사회와 승인을 거쳐 사용되는 돈이다. 현재 중장기 발전 계획이 논의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용처 공개는 곤란하지만 올해 안에는 결정이 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건축물 건립의 경우 수백억대의 돈이 드는 큰 결정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생회 측은 이에 답답해하는 눈치다. 김태성(정통 4)총학생회장은 "계획만 세우지 말고 당장 필요한 용도에 우선적으로 돈을 사용해야 한다. 기자재 교체, 스마트 학생증 등 학생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많은데 학교는 확보된 예산이 없으며 이를 거부하고 있다. 또 적립금의 원래 주인인 학생에게 사용처를 알려주는 건 당연한 일이다"라고 말했다.

적립금은 교육부에서 제정한 사학재무회계규칙에 따라 건축, 연구, 장학, 퇴직, 기타 항목별로 축적된다. 이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특히 건축자금의 경우 감가상각비를 의무적으로 적립하게 되어있다. 감가상각비란 건물이나 설비 등 해마다 소모되는 가치의 감소분을 보전하는 절차에 따라 계산된 비용을 뜻한다.


학교 측은 적립금을 전채지변과 같은 만일의 경우에 대비한 예비비의 개념으로, 대부분의 대학이 일년간 등록금이 없어도 충분히 학교를 운영할 수 있을 정도의 적립금을 쌓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총학생회가 '3억 원의 학교 적립금을 쓸 수 있다면?'이란 주제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다수의 학생들이 ▲스마트 학생증을 만들기(467명)를 희망했다. 다음으로 ▲잔디광장 리모델링(136명) ▲정문 조형물 건축(96명) ▲우편관 외관 꾸미기(83명) 순이었다. 기타 의견으로 학교 부지 확장, 장학금 추가, 무선인터넷 설비 확충 등이 제시됐다.

오재명 기자 gulyomee@hansung.ac.kr

『한성 권장도서 66선』 기념 제1회 독서경진대회

한성학원 설립 66주년을 맞이하여 한성인의 독서력 증진을 목적으로 『한성 권장도서 66선』을 정하고 이를 기념하여 제1회 독서경진대회를 개최합니다. 책 읽는 즐거움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울 기회가 될 독서경진대회에 관심있는 한성인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독서경진대회 일정
 - 응시 자격 : 한성대 재학생
 - 접수 기간 : 2011년 9월 14일(수) ~ 30일(금)(학술정보관 홈페이지 접수)
 - 대회 개최 일시 : 2011년 11월 2일(수) 오후 4시
 - 대회 개최 장소 : 학술정보관 일반열람실 5층(제3열람실)
 - 수상자 발표 : 2011년 11월 7일(월)
- 독서경진대회 내용
 - 출제 범위 : 한성 권장도서 66선 중 「지정도서 10선」에서 출제
 - 시험 유형 : 주관식 단답형
 - 「지정도서 10선」 및 「시험유형」 등의 기타 자세한 사항은 9월초에 공고

- 상장 및 상품
 - 대상 1명 : 상장 및 50만원 상당의 상품
 - 최우수상 2명 : 상장 및 30만원 상당의 상품
 - 우수상 3명 : 상장 및 20만원 상당의 상품
 - 장려상 7명 : 상장 및 10만원 상당의 상품
 - 참가자 전원에게 기념품 증정
- 한성 권장도서 66선 목록 : (옆면 참조)

* 위 일정은 학교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양한 시도 있었던 2011 대동제

잉글리시 라운지 파티, 스탬프 투어 등 선보여



지난달 25일~27일까지 3일간 열렸던 올해 대동제는 작년보다 풍부해진 부스 행사와 학생들의 참여로 이루어진 무대 행사를 통해 많은 호평을 얻었다.

지난달 25일~27일까지 3일간 열렸던 올해 대동제는 작년보다 풍부해진 부스 행사와 학생들의 참여로 이루어진 무대 행사를 통해 많은 호평을 얻었다. 또한 MBC와 함께 방송 행사를 진행하면서 지금까지의 축제와는 다른 새로운 형식의 행사가 이뤄지기도 했다. 전반적으로 건전한 축제로서 한 단계 진보된 모습을 보였지만, 주점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점이나 축제 중에도 수입을 들어야 하는 단점 등은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았다.

▲청중평가단이 도입된 낙산가요제

한성대학교 방송국 HBS에서 주최한 낙산가요제 역시 큰 관심을 모았다. 이번 낙산가요제에는 예선을 통과하고 올라온 열 개 팀이 직접 만든 창작곡을 연주해 경합을 벌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올해 가요제 우승 팀은 고려대학교 가양밴드로 상금 100만원을 수여받았다. 이외에 한국체육대학교 록밴드 봉우리와 한성대학교 록밴드 왕산악이 각각 2위 팀과 3위 팀으로 선정되어 상금을 수여받았다.

이번 낙산가요제에는 청중평가단, 추천행사 등 일반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도입하여 좋은 평가를 얻었다. 또 밴드와 가수가 준비를 하는 동안 스크린으로 미리 제작한 예고 영상을 보여줌으로써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또 가요제가 끝나고 있었던 UV의 공연은 많은 학생들의 호응을 얻었다.

하지만, 낙산가요제에는 학생들이

많이 참여한 것에 비해 같은 날 이뤄진 부스행사에는 학생들의 참여가 너무 저조했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 날 축제에 참여한 허준석씨는 "설치된 부스가 너무 적었고, 과에서 하는 행사가 부족했다"며 "학생들의 참여가 너무 적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과행사를 제시한 잉글리시 라운지 파티

영문과에서 주최한 잉글리시 라운지 파티는 26일, 27일 저녁에 진행되어 많은 학생들의 참여를 얻었다. 또 클럽 파티와 더불어 먹을거리를 팔고, Free Drink 행사를 진행해 다양한 활동의 측면도 확보했다. 김미정(한국어문 4)부총학생회장은 "다른 과의 행사들이 주점에만 치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어영문학부의 잉글리시 라운지 파티는 긍정적인 변화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다른 과에서도 대동제에 이런 행사를 기획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잉글리시 라운지 파티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양한 무대로 꾸며진 무대행사

둘째 날부터 진행된 무대 행사는 동아리 공연부터 전문 무용단의 공연까지 다양한 행사로 채워졌다.

김태성(정통 4)총학생회장은 "셋째 날에 MBC와 함께 행사를 진행하게

되면서 학생들의 무대 행사에 대한 지원을 많이 늘릴 수 있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무대 행사에서는 학생들의 공연 이외에도 해령, 노라조, 포미닛 등 초대 가수의 공연도 함께 계획돼 많은 학생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무대 행사와 관련해 이민정(영문 1) 학생은 "무대 행사가 많지만, 역시 연예인 공연에 관심이 가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외의 다양한 행사들

이번 축제에는 홍보대사 하랑, 학생복지위원회, 야간총학생회 등에서 준비한 부스와 총학생회가 준비한 열기구, 이동 동물원, 오락기, 로데오 등 다양한 오락시설들이 학교 곳곳에 설치되었다.

총학생회는 이와 함께 스탬프 투어 팸플릿을 만들어 학생들이 부스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획했다.

김태성 총학생회장은 "학생들의 부스행사 참여도를 높이고, 부스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리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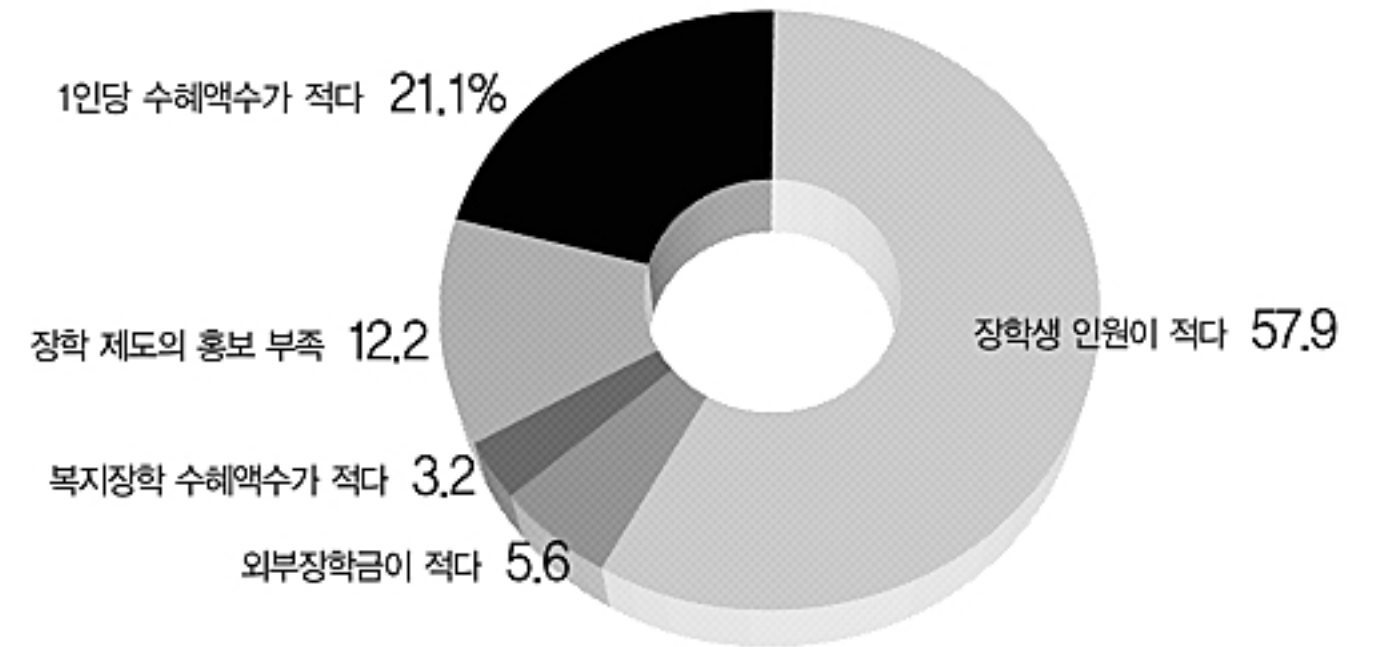
이외에도 총학생회는 현상수배 이벤트, 빨리 먹기 이벤트 등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해 많은 학생들이 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도 했다.

김태성 총학생회장은 "이전까지의 대동제는 대부분의 행사가 운동장에만 국한되었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번 대동제는 학교 전반에 걸쳐서 부스행사를 펼쳐 이런 단점을 잘 극복해낸 것 같다. 다만 탐구관 쪽의 부스들이 큰 호응을 얻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백경민 기자 jongmin@hansung.ac.kr

■ 통계로 본 우리학교

교내 장학제도 불만족 가장 큰 원인은 적은 "인원 수"



우리 학교 대다수 학생들이 장학생 인원이 적다는 이유로 교내 장학제도에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지원처에서 발행된 학생생활연구(2010)에 따르면, 우리학교 학생 1천275명 중 장학제도에 만족하지 않는 학생은 961명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들을 대상으로 장학제도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장학생 인원이 적다가 57.9%로 제일 많았다. 다음으로 ▲1인당 수혜액수가 적다 (20.3%) ▲장학제도의 홍보부족 (12.2%) ▲외부장학금이 적다 (5.6%)는 답이 나왔다.

단과대학 별로도 학생들은 '장학생 인원이 적다'는 데 의견을

두지 않았다. ▲인문대학의 학생들은 ▲장학생인원이 적다 62.1%, ▲1인당 수혜액수가 적다 18.2%, ▲장학제도의 홍보 부족 10.6%, ▲외부장학금이 적다 5.8% 순이었으며, ▲사회과학대학 학생들은 ▲장학생 인원이 적다 47.1%, ▲1인당 수혜액수가 적다 24.7%, ▲장학제도의 홍보 부족 17.7%, ▲외부장학금 6.4%였다. ▲예술대학 학생들은 ▲장학금 인원이 적다 61.1%, ▲1인당 수혜액수가 적다 19.7%, ▲장학제도의 홍보부족 10.4%, ▲외부장학금이 적다 5.7%였으며, ▲공과대학 학생들은 ▲장학금 인원이 적다 67.7%, ▲1인당 수혜액수가 적다 19.5%, ▲장학제도의 홍보 부족 6.6%, ▲외부장학금이 적다 4.9% 순으로 나타난 것이다.

특히 여학생(여학생 중 62.1%가 답변. 남학생의 경우 53.6%)과 공과대학생일수록 만족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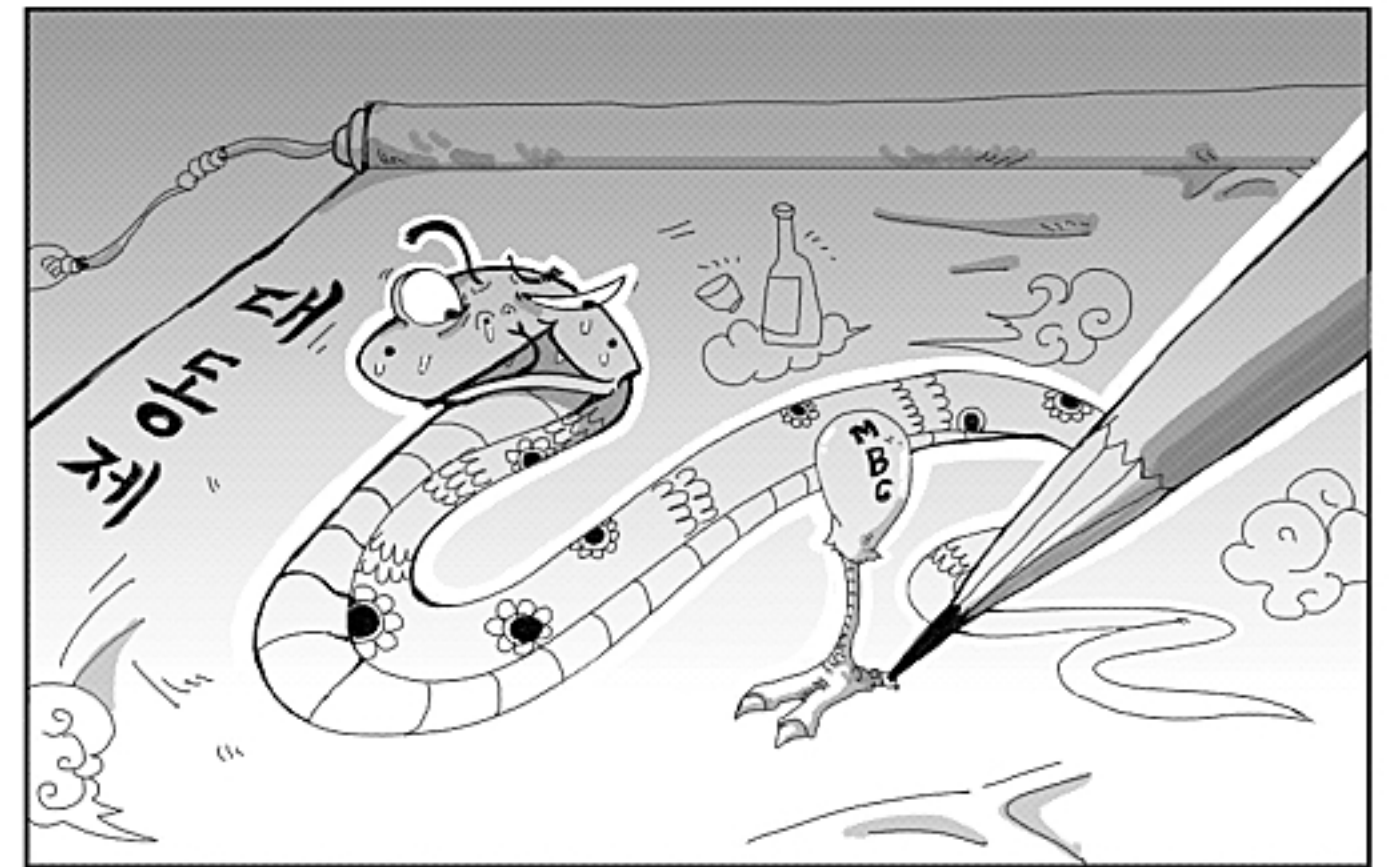
홍선민(지정 1)학생은 "장학금 수혜자가 적은 것도 문제지만 최근 자료에 의하면 서울 소재 대학의 장학금이 등록금의 2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며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이나 확실한 혜택을 받기 위해 수혜 액수도 늘어났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한식(경영 3)학생은 "타학교에 비교했을 때 우리 학교는 전액 장학금이 너무 적다는 것이 아쉽다. 장학금의 금액을 더 올려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현우 기자 hyunwoo@hansung.ac.kr

대학만평

이주영(애니제품 4)



1/4은 항상 2가 될 순 없지... 이번 대동제는 어때?

한성 권장도서 66선 목록

| ★ 한국문학 | | | |
|--------|-----------------|-----|--|
| NO. | 서명 | 저자 | |
| 1 | 연암선문선 | 박지현 | |
| 2 | 토지 | 박경리 | |
| 3 | 광장 | 최민준 | |
| 4 | 얼마를 부탁해 | 신경숙 | |
| 5 |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 조세희 | |
| 6 | 시 읽는 기쁨-3 | 정호규 | |
| 7 | 열하일기 | 김덕환 | |

| ★ 외국문학 | | | |
|--------|---------------|----------------|--|
| NO. | 서명 | 저자 | |
| 1 | 고도를 기다리며 | 사뮈엘 베케트 | |
| 2 | 카리야조프 가의 형제들 | 도스토예프스키 | |
| 3 | 파우스트 | 요한 볼프강 폰 괴테 | |
| 4 | 그리스로마신화 | 이윤기 | |
| 5 | 세익스피어시대미국 | 세익스피어 | |
| 6 | 이오정전 | 루쉰 | |
| 7 | 어린왕자 | 생텍쥐페리 | |
| 8 | 노인과 바다 | 에른스트 헤밍웨이 | |
| 9 | 부활 | 톨스토이 | |
| 10 | 돈키호테 | 세르반테스 | |
| 11 |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 | 알랭 드 보통 | |
| 12 | 연금술사 | 파울로 코엘료 | |
| 13 | 보비리 부인 | 귀스타브 플로베르 | |
| 14 | 호밀밭의 파수꾼 | 제롬 데이비스 셀링저 | |
| 15 | 백년의 고독-1-2 |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 | |

| ★ 철학 / 사상 | | | |
|-----------|------------------|-------------|--|
| NO. | 서명 | 저자 | |
| 1 | 육민심서 | 장약용 | |
| 2 | 백범일지 | 김구 | |
| 3 | 자유론 | 존 스튜어트 밀 | |
| 4 | 국부론 | 애덤 스미스 | |
| 5 | 간디자서선 | 간디 | |
| 6 | 논어 | 공자 | |
| 7 | 삼국유사 | 일연 | |
| 8 | 국가 | 플라톤 | |
| 9 | 피라두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 프리드리히 니체 | |
| 10 | 정의란 무엇인가 | 마이클 샌델 | |
| 11 | 슬픈열대 | 클로드 레비 스트로스 | |
| 12 | 방법서설 | 데카르트 | |
| 13 | 고민하는 힘 | 강상중 | |
| 14 | 다산 정약용 유배지에서 만나다 | 박석우 | |

| ★ 역사 | | | |
|------|-----------------|-----------|--|
| NO. | 서명 | 저자 | |
| 1 |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1-6 | 유홍준 | |
| 2 | 역사란 무엇인가 | 에드워드 H. 카 | |
| 3 | 문화의 수수께끼 | 마빈 해리스 | |
| 4 | 모던 타임스 1-2 | 폴 존슨 | |
| 5 | 문명고 바다 | 주영철 | |
| 6 | 책만 보는 바보 | 안소영 | |
| 7 | 역사의 공간 | 이진경 | |

| ★ 과학 | | | |
|------|--------------|-----------|--|
| NO. | 서명 | 저자 | |
| 1 | 과학혁명의 구조 | 토마스 S. 쿤 | |
| 2 | 엔트로피 | 제레미 리프킨 | |
| 3 | 중의기원 | 칼스타인 | |
| 4 | 카오스 | 제임스 글리크 | |
| 5 | 통섭 | 에드워드 월슨 | |
| 6 | 시간의 역사 | 스티븐 호킹 | |
| 7 | 코스모스 | 칼 세이건 | |
| 8 | 충군쇠 | 재레드 다이아몬드 | |
| 9 | 거의 모든것의 역사 | 빌 브라이슨 | |
| 10 | 이중나선 | 제임스 왓슨 | |
| 11 | 자연과학의 세계 1-2 | 김희준 | |

| ★ 정치 / 경제 / 사회 / 예술 | | | |
|---------------------|------------------|--------------|--|
| NO. | 서명 | 저자 | |
| 1 | 서양미술사 | E. H. 고프리치 | |
| 2 | 나쁜 시아리아인들 | 장하준 | |
| 3 | 괴짜경제학 | 스티븐 레빗 | |
| 4 | 독서력 | 사이드 다카시 | |
| 5 | 행복의 지도 | 에릭 와이너 | |
| 6 | 강의 | 신명복 | |
| 7 | 끝나지 않은 추락 | 조지프 E. 스티글리츠 | |
| 8 | 불황의 경제학 | 폴 크루그먼 | |
| 9 | 희망의 발상 | 제임스 달 외 | |
| 10 |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 장 지급리 | |
| 11 | 사교 정리학 | 도야마 시게히코 | |
| 12 | 한국의 이 특강 | 오주석 | |

열정은 어떻게 '스펙' 이 되는가

자본주의가 새롭게 발견한 열정 사용법

'경쟁자를 이기기 위해서는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학점 관리를 해야 하고, 자원 봉사도 해야 한다. 교내 활동을 활발히 하며 그 중 거도 남겨야 한다. 토익 성적은 기본이고 내가 가고자 하는 회사에 대한 공부도 해야 하고, 직무에 대한 전문성도 미리 길러야 하며,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선배를 만나 재롱도 부려야 한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러므로 나만의 '필살기'도 준비해야 한다.' '열정은 어떻게 노동이 되는가'(한윤형·최태섭·김정근 지음, 웅진 지식하우스 펴냄) 중 발췌

취업을 앞둔 요즘의 대학생이라면 상당히 공감할 만한 대목이다. 사회봉사, 워킹 홀리데이, 해외 배낭여행 등은 이제 순수한 자기계발과는 거리가 멀다. 그보다는 면접관 앞에서 당당해지기 위한 하나의 일환이다. 자신을 객관화하고 상품화하는 것이다.

이제(24, 대학생)씨는 "어느 순간부터 열정이라 감정이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되어 버렸다. 학교 교수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생각이 대표적인 예다. 이번에 교수가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어 자신의 일을 도울 학생들을 뽑는데, 평소의 '열정적인' 모습을 어필해 내 실력을 인정받으면 취업에 도움이 될 거란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 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열정 또한 젊은이들이 갖춰야 할 일명 '스펙'에 추가되었다. 열정이 취업을 위한 하나의 조건이 되었다는 이야기다. 이러



한 사회에 대해 현실의 젊은이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김민지(23, 대학생)씨는 "열정은 강요할 수 없는 문제라 생각한다. 하지만 이렇게 열정을 강요당해서라도 스펙을 관리하지 않으면 불안할 것 같다. 그나마 이렇게라도 해야 사회가 굴러간다는 생각이 슬프고 씁쓸하다."고 이야기했다.

우리 사회에 '열정노동'이란 신조어가 생겨났다. '열정은 어떻게 노동이 되는가'에서 말하는 열정노동이란,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이유로 노동이 은폐되는 상황을 일컫는 말이다. 현대사회는 원하는 일을 자발적으로 하는 청년들의 열정을 당연하다는 듯 착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 좋아서 하는 일은 노동이 아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노동이 은폐되는 상황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란 이유로 이전보다 더한 성실함과 근면함이 요구되고, 열악한 조건도 '좋아하는 일을 하려면 감수해야 하는 일'이 된 것이다.

이렇게 현재의 20대 젊은이들에게 열정은 변질되어 있다. 열정이란 단어는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그 의미를 상실했다. '열정은 어떻게 노동이 되는가'의 공동저자인 김정근씨는 "어느 순간부터 열정이란 말이 시시해졌다. 열정이라 감정은 두근거리고 위협할 수 있는 감정인데 열정이라 말이 취업을 위한 노력 정도로 여겨지고 있다. 이 두 가지의

열정이 분리되지 않고 섞여 구분하기 어려운 것이 되었다는 게 가장 문제다."고 말한다. 열정을 가지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지만, 이를 강요하는 사회구조는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생기게 된 원인은 '소비사회'로 전환되며 노동이 미적평가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독일의 사회학자 지그문트 바우만에 의하면 '게으름은 악덕'이었기에 노동은 윤리적으로 정당한 것이었다. 그러나 대량생산 체제로 변화한 사회는 모든 물질이 풍족한 '소비사회'로 전환됐다. 이에 일은 미적인 평가의 대상이 됐다. 한국사회의 열정 노동은 이와 반대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일이 미적평가의 대상이 되면서 직업과 취미, 일과 놀이, 노동과 여가의 경계선이 모호해졌다. 심지어 기득권층이 이를 노동윤리로 삼았기에 '좋아하는 일을 하니 이 정도는 감수하라' 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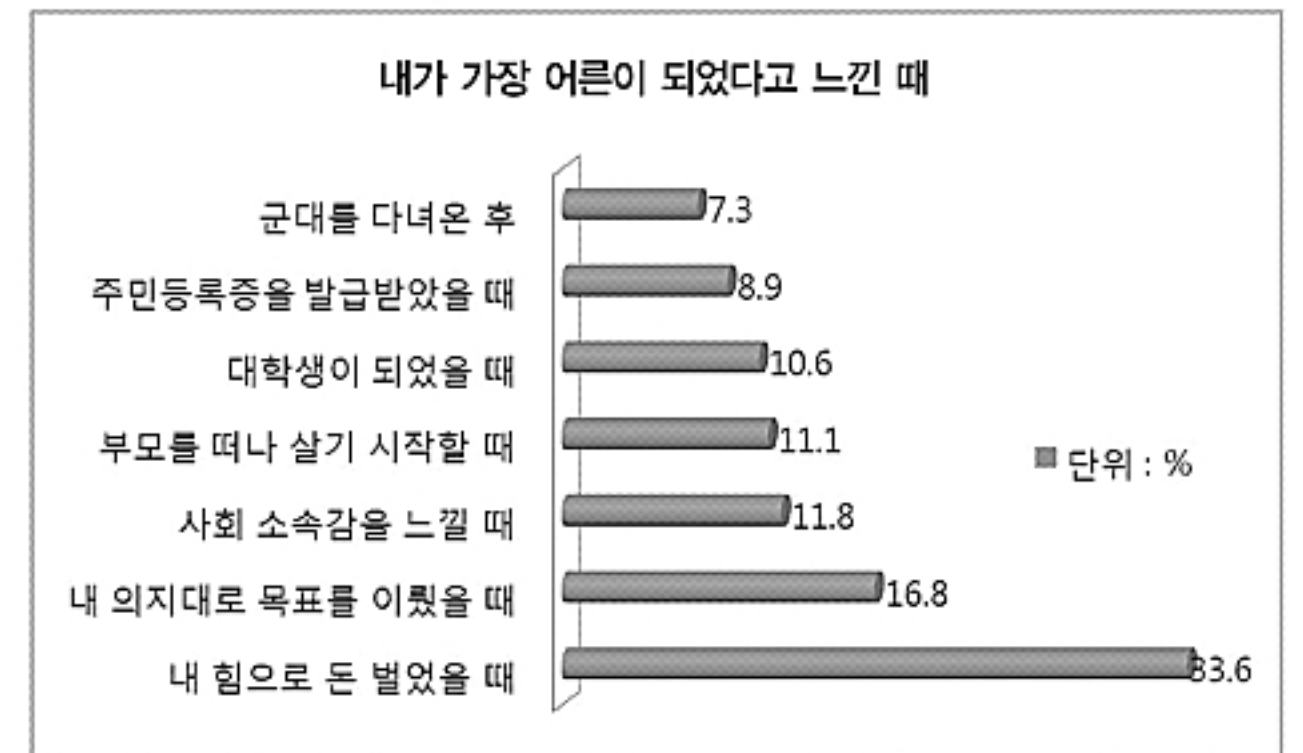
이러한 사회적 함의를 짚 방안을 구하기는 쉽지 않다. 열정의 착취로 인해 생긴 악순환을 끊기 위해, 어떤 형태로든 새로운 열정을 불러와야 한다는 저자들의 결론은 어딘가 모순적이다.

이에 대해 김정근씨는 "문화를 생산하는 자와 소비하는 자가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시스템, 즉 문화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고 사회적 함의를 짚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성미 기자 sangmi@hansung.ac.kr

통계로 본 한국사회

대학생 33.6%, 내 힘으로 돈을 벌었을 때 '어른' 이 된 것 같다고 느껴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이 대학생 2천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장 어른이 되었다고 느낀 때는 '내 힘으로 돈을 벌었을 때'라는 응답이 33.6%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내 의지대로 목표를 이루었을 때' (16.8%)가 2위를 차지했고, 선거, 권리 행사 등 '사회 소속감을 느낄 때' (11.8%), 자취, 기숙사 등 '부모를 떠나 살기 시작할 때' (11.1%), 라는 응답이 그 뒤를 이었다.

장윤정(지정 4학생)은 "아르바이트를 통해 내 힘으로 돈을 벌게 되어 돈을 자유롭게 쓸 수 있을 때 어른이 된 것 같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또한 이정민(무용 4학생)은 "부모님의 곁에서 떨어져 혼자 살게 되었을 때"라며 "공과금 수납과 빨래, 취사 등을 혼자 해결해야 한다는 것, 또한 그런 생활이 익숙해졌을 때 어른이 되었다고 느꼈다"고 응답했다. 한편 정아름(한국어문 3학생)은 "부모님과 함께 지내고는 있지만 부모님께 학비와 용돈을 받기 죄송할 때 그렇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한 대학생들은 어른이 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덕목으로 '책임감' (39.5%)을 꼽았다. 이어 '인격적 성숙' (22.3%), 스스로의 의지와 독립심(21.7%), 경제적 독립(14.8%), 기타 (1.7%)의 응답이 이어졌다.

정아름 학생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한다. 어느정도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인격적 성숙'을 꼽았다. 또 장윤정 학생은 "어른이 되면 자신이 한 말과 행동에 있어 어느 정도 책임감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것이 동기부여가 되어 주어진 일을 더욱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실제로 대학생들은 어른이 되는 것에 대해 67.2%가 어른이 되는 것이 '부담되고 두렵다'고 응답했다. '부담된다' (44.1%), '두렵다' (23.1%), '자연스럽고 당연하다' (13.9%), '기대된다' (11.8%), '별 느낌 없다' (7.1%) 순으로 나타나 어른이 된다는 것에 대해 기대보다는 부담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예진 기자 odory11@hansung.ac.kr

'미안해하지 마라,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운명이다'

노무현 대통령 추모 문화제 서울광장에서 열려



지난 달 21일 서울광장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2주기 추모 문화제가 열렸다.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추모 문화제에는 도서 전시, 판화 판매, 사진전, 기념품 판매, 봉하마을 농산물 판매 등의 부스가 설치되었고 서울광장 앞 덕수궁 쪽에는 분향소가 설치되

었다. 비가 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추모하려는 인파로 서울광장 일대는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오후 4시에는 안희정 충남지사와 이광재 전 강원지사, 김두관 경남지사,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 편지일보 총수 김어준씨와 시

사평론가 김용민씨가 '사색토크-2012, 놀러와'를 진행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을 추모하며 기억하는 자리를 가졌다.

오후 7시부터 '슬픔을 넘어 희망으로'라는 주제로 추모공연이 진행되었다. 무대에는 '10cm', 가리온, 한영해, 이상은, 안지환과 자유, 우리나라 등 많은 가수가 추모를 위해 행사에 참여했다. 또한 정운호 전 국립오페라단장이 키보드, 여균동 영화감독이 색소폰, 조기숙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드럼, 김만수 부천시장이 기타를 맡은 프로젝트밴드 '2011 사람은 세상' 역시 추모공연에 참석했다.

한편, 반대서명, 1인 시위를 하는 이도 많았다. 종편채널에 투자한 기업에 대해 불매운동을 한 양재일(44,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대표)씨는 "노무현 대통령이 지켰던 원칙과 소신이 우리가 하는 시위의 성격과 부합한다고 생각하여 추모제에 참가하게 되었다"고 참여 이유를 밝혔다.

김명해(42, 문화제 기술자)씨는 "노무현 대

통령을 추모하기 위해 이 자리에 참여했다. 다음에는 더 많은 이들이 모여서 돌아가신 노 대통령의 뜻을 이어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심지어는(21, 대학생)씨는 "예전 노무현 대통령이 추구하던 사회의 모습이 내가 추구하던 사회였다. 때문에 노 대통령을 기리기 위해 추모제에 참석하였다. 여러 사람이 모여 고인을 추모한다는 것이 참 좋다."고 전했다.

김윤희(31, 대학원생)씨는 "원래부터 노무현 대통령을 매우 좋아했다. 서거 2주기를 맞이하여 그를 그리워하는 마음에 참여하였다. 같은 마음을 가진 이들과 함께 하니 위안이 된다."고 이야기했다.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최진선(29, 공인중개사)씨는 "그를 잃었다는 슬픔과 그를 그렇게 보낸 죄인으로서 반성하는 의미로 참가하였다.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 생각하고, 우리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추모제가 계속될 수 있도록 이 행사를 이어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백현우 기자 hyunwoo@hansung.ac.kr

낙산만평

이성미 기자



공대 학생회 1학기 과별 우수 소모임 선발

안녕하세요? 13대 공과대학 학생회입니다. 공대 학생회에서 1학기 과별 우수 소모임 지원서를 받습니다.

- 일 시 : 6월 1일부터 6월 14일까지 2주간
- 대 상 : 공과대학 각 과별 소모임
- 신청양식 : <http://club.cyworld.com/13special>

- ※ 선정 방법은 과학생회장단, 공대 학생회와 회의를 통하여 선정.
- 신청양식을 다운받으셔서 choiminjee78@nate.com으로 메일 보내주시거나 공학관 B동 지하층 공대학생회실로 직접 가져오셔도 됩니다!
-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 지도 교수 확인란, 과 학생회장 확인란에는 서명을 받아야 함.
- ※ 활동 내역 기간 기준은 없음.
- ※ 수상경력은 2010년 1학기 하계방학 이후부터 2011년 현재 1학기까지의 수상 경력 작성.

- 기타문의사항
- 공대학생회장 010-7288-6886 / 공대부학생회장 010-6487-8764
- choiminjee78@nate.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3대 공과대학 학생회 특공대





“피부관리” 서창호(지적3) 가작



5회 사진 공모전



“대상 없는 그리움” 김다혜(시각영상 1)

최우수상

수상작 외 심사평

《일상 속에서》 이영한

정말 아까운 사진이다. 사람들 머리 위로 거대한 구조물이 보이고 줄을 서서 열차를 기다리는 모습이 도시인의 일상을 잘 담았다. 다만 화면 구성에서 맛깔함이 보이고 화질이 매우 안 좋아 아쉽다.

《성장통》 전규석

성장기에 대해 표현하려는 의도가 좋았다. 사진구성도 나쁘지 않다. 다만 약간의 인위적인 느낌이 있다.

조아라

회화적으로 매우 뛰어난 작품이다. 다만 제목이 없고 그냥 풍경사진에 그친 것 같아 아쉽다.



“일상 속에서” 이영한(산공 4)



조아라(회화 3)



“성장통” 전규석(경영 1)

심 / 사 / 평



최병락 (프레시안) 기자

이미지는 맥락 속에 존재한다. 증명하고 기록하는 수단으로서의 사진을 벗어나 '표현의 매체'로 예술의 경계를 넘나드는 오늘날의 사진이라면 더욱 그렇다. 이런 '사진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도 거의 없는 듯하다.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은 제목이었다. 이미지와 어울리는 내용을 갖췄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응모작 중 말하려는 바가 분명하지 않거나 의도가 뚜렷했더라도 이미지로 표현해 내지 못한 사진이 많은 점은 아쉬웠다.

김다혜씨의 《대상 없는 그리움》이 최우수작에 선정됐다. 자동차 극장처럼 보이는 행한 공간에서 텅 빈 스크린을 바라보는 어떤 이의 뒷모습을 완성도 높은 이미지로 잡아낸 사진이다. 작자는 이 풍경을 '그리움'과 연결시킨다. 이것이 그리움인지 동경인지 외로움인지는 보는 사람마다 다르게 느낄 수 있지만 사진가는 단순한 풍경 묘사에만 그치지 않고 과감히 그리움이라는 주관적인 시선을 담아내고 있다. 이미지가 그럴만하지 못했다면 억지스러웠을 것이다. 물론, 사진 속 주인공의 실제 사연까지 설명했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으나 그것은 다음 차원의 문제로 남기기로 했다.

가작에 선정된 서창호씨의 《피부관리》는 건물 외벽을 청소하는 풍경을 피부관리에 비유한 유희 있는 작품이다. 마침 인부들 아래로 '피부과'라는 글씨가 선명하다. 이미지가 충분히 설명적이고 제목은 묘사를 중복하지 않은 채 다른 상상을 유도한다. 꼬투리 잡기 힘든 사진이지만 만약 제목이 '공중의 인부들'이었거나, '아~ 깨끗해 졌다면 다시 들춰보지 않았을 사진이다.'

이번 공모전의 특징 중 하나는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진 응모작이 거의 없었다는 점이다. 역사적,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좋은 이미지로 포착해내고 그 속에 고유한 해석을 담아낸 사진을 내심 기대한 것도 사실이다. 그런 사진을 찍는 작가가 우리나라에 몇 명 되지 않는다는 감증을 대학생들의 공모전에서 풀고 싶은 욕심이 있었을까.

하지만 모든 사진이 현실에서 치열할 수는 없다. 한편으로 오늘의 젊은이들이 개인적인 시선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위안을 삼는다. 응모작은 모두 174점. 비록 2점만 선정됐지만 응모작 수만큼의 이유도 모두 1등인 흥미로운 사진들이었다.

최우수상 당선 소감



김다혜 (시각영상 1)

소년인지 여인인지 알 수 없는 뒷모습은 그저 멍하니 바라본다. 그녀가 보는 곳은 텅 빈 들판에 놓여있는 스크린일 수도, 노을로 꽂 찬 하늘을 물들이고 있는 어둠일 수도, 혹은 먹먹하게 차오르는 그녀의 마음 속 일 수도 아무도 알 수 없다. 사진의 제목이 '대상 없는 그리움'인 것처럼 시선이 향하는 곳은 물론 그녀가 생각하는 것, 그 대상의 존재는 모호하다.

사실 이 사진은 하나의 제목에 포함되는 세 장의 사진들 중 하나이다. 세 장 모두 어둠 속에서 무엇인가를 멍하니 바라보거나 찾고 있다. 나머지 두 장 또한 대상이 없는 그리움에 헤매고 있는 뒷모습이 담겨있다. 세 사진 모두가 의미 있지만 '대상 없는 그리움'을 좀 더 잘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하던 이 사진이 당선작이 되었다 했을 때는 기뻐다.

슬직히 기대를 안했다면 거짓말일 테고 어느 정도의 기대감이 있었기에 출품했던 것이겠지만, 이 공모전에 많은 인원이 참가했다는 말을 듣고는 이내 그 기대감은 자연스럽게 사라져버렸다. 출품한 사진 세 장이 모두 구성으로 버려지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하지만 평소처럼 받았던 통화가 당선되었다는 말일 줄은 전혀 몰랐다. 사실 한 통의 전화와 함께 수상 소감문을 써야한다는 말을 듣고 글을 쓰자니, 이런 글은 당직 써 본 적이 없어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었는데 결국, 많이 황설수설 한 것 같아 부끄럽기도 하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사진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분명히 있었다. 외로움은 혼자서도 채울 수 있지만 그리움은 그 대상이 있어야만 채울 수 있다. 하지만 누구를 향한 그리움인지도 모른 채 어둠 속에서 사진속의 그녀가 바라는 것은 그 허무한 그리움의 끝일 수도 연장선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필자 본인일 수도 있고, 혹은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일지도 모르겠다. 그리움의 끝, 혹은 연장선에 서 있는 우리는 좀 더 위로 받기를 원하고 그리움의 대상에 대해 궁금해 한다. 이 사진에 담고 싶었던 것은 대다수 혹은 극소수의 젊은이들이 느끼는 외로움, 그에 따른 대상 없는 그리움이었다. 필자 또한 이 사진을 통해 공감하고 그 대상에 대해 한 번쯤 의문을 가졌으면 좋겠다.



2011년 1학기 신문에서는 무엇을 다루었나

한 학기 아이템 돌아보기

제447호부터 제451호까지, 2011학년도 상반기 신문을 돌아보는 취지에서 그동안 다루었던 아이템을 정리해 보았다.

취재단
이번 취재단은 등록금과 적립금 문제 등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 내는 것과 또 학생들이 공감대를 일기 위해 대중적인 관심사를 갖게 다루는 것 중에서 중심을 잡기 위해 노력했다.

제447호는 학교와 총학생회의 등록금납의 과정이 반영된 등록금인상기사와 적립금 5백억원의 사용계획을 다루었다. 제448호는 학생회선거공약 및 선거인정 공지의 새로 선출된 학생회에게 학생들이 바라는 점들을 다루었다. 또한 지금까지 입어온 화제사건을 되짚어보고 문제 해결책을 제시, 불편한 연속 진행을 대응서비스에 관해 학교·학생 측의 입장을 다뤘다. 제449호는 공개기 및 단대 학생회 선거결과 및 학생요구안내용과 현 정황상황을 다루었다. 제450호는 학생요구안 완료, 학생회비 인건, 한성대 인도르이드 어플리케이션 등의 내용을 다루었다. 제451호는 대동제축제가 앞서 무대행사일정, 미래엔 열렬성의 운영방식의 전환에 따른 학생들의 의견과 학교 측의 의견을 다루었다. 또 '과격파'의 인기 비결, 한성대 신문의 현 위치를 고찰하고 나아가야 할 점을 다뤘다.

사회면
이번 한 학기 사회면은 대학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위주 아이팀을 선정해 기존 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학생의 현 위치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는 면이었다.

제447호는 이광민주회회장을 간단히 짚어주었던 기사였다. 제448호는 학내의 청소년자 최자정금문제를 개선포하고 하는 집

한성대신문사 기자들이 말한다

지난달 20일, 현역 기자들은 올해 1학기 신문 평가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학기의 신문에 대해 전반적으로 되짚어보고 반성하며 더 나은 신문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자리였다. 이번 신문평가회의에는 이상미(메디 3) 편집국장, 박종민(한국어 1) 기자, 오지영(의생학 1)수습기자, 박원우(지구 1)수습기자가 참여했다.

먼저 박종민은 이번 학기 평가회의에서 이번 취재면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박종민 기자는 "이번 신문들은 레이아웃의 변경도 많았지만 이번 학기는 레이아웃 변경이 거의 없이 진행돼 되어서 좋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상미 편집국장은 이에 동의하며 '아이템 선정에 많은 고민을 했다. 이번 학기 기사들을 정리해보니 선거 등의 내용이 너무 학술적이기도 하지만 모두 중요 내용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학내운영위원회'에 대한 참여여야 이렇게 좋은 아이템들이 많이 얻어졌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신문을 학생들이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 것, 새로운 것을 알려주는 것이 많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학교점이나 한성대 어플 등의 대중적 이슈를 기사화한 것은 참신한 시도가라고 생각한다. 오지영 기자는 "고발성이 강한 기사를 많이 실었다면 좋지 않나"고 말하며 학술면의 난해함을 꼬집었다. 더불어 "좀 더 많은 독자들을 고려하여 쉬운 예와 설명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종민 기자는 "원래 아무런 사전 지식이 없어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사를 쓰고 싶었다. 외도는 그러했지만 그것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것 같다.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쓰겠다."고 말했다. 전체적으로 기조가 뚜렷하지 못했고 너무 난해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다.

문화면에 대해 박원우 기자는 "문화면은 너무 학술적이고 구분이 없었다고 본다. 주제가 학술적인 것들 다룬다는 것만 다를 뿐이 아니라 너무 학술적인 이야기를 흥미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오지영 기자는 "너무 고상한 주제만 다루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스포츠 같이 대중적인 아이템을 다룰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종민 기자는 "컬투를 열중 같은 대중문화는 다루는 것도 좋은 생각이 것 같다"고 말했다. 너무 학술적인 접근을 하였고, 좀 더 대중적인 아이템을 다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박종민 기자는 "학술면을 읽었을 때 너무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하며 학술면의 난해함을 꼬집었다. 더불어 "좀 더 많은 독자들을 고려하여 쉬운 예와 설명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종민 기자는 "원래 아무런 사전 지식이 없어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사를 쓰고 싶었다. 외도는 그러했지만 그것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것 같다.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쓰겠다."고 말했다. 전체적으로 기조가 뚜렷하지 못했고 너무 난해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다.

문화면에 대해 박원우 기자는 "문화면은 너무 학술적이고 구분이 없었다고 본다. 주제가 학술적인 것들 다룬다는 것만 다를 뿐이 아니라 너무 학술적인 이야기를 흥미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오지영 기자는 "너무 고상한 주제만 다루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스포츠 같이 대중적인 아이템을 다룰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종민 기자는 "컬투를 열중 같은 대중문화는 다루는 것도 좋은 생각이 것 같다"고 말했다. 너무 학술적인 접근을 하였고, 좀 더 대중적인 아이템을 다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박종민 기자는 "학술면을 읽었을 때 너무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하며 학술면의 난해함을 꼬집었다. 더불어 "좀 더 많은 독자들을 고려하여 쉬운 예와 설명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종민 기자는 "원래 아무런 사전 지식이 없어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사를 쓰고 싶었다. 외도는 그러했지만 그것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것 같다.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쓰겠다."고 말했다. 전체적으로 기조가 뚜렷하지 못했고 너무 난해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다.



이재민 기자 odory1@hansung.ac.kr

박원우 기자 hyunwoo@hansung.ac.kr

이재민 기자 odory1@hansung.ac.kr

주간 교수에게 들었습니다

엄종석(멀티미디어공학과)프레스센터장

이런 학기에 여러 가지 주제의 기사를 많이 다루었다. 아이팀들의 적절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 신문사의 기자들이 전문 기자가 아니라 학업을 병행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제한된 환경에 비하면 기사의 아이템이 좋은 것 같다. 하지만, 우리학교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있는 아이템에 대한 조사 방안이 마련되어 그런 주제들이 신문에 반영되면 더욱 좋겠다. 각 단과 대학별로 자문단을 구성하거나, 교수·대학원생과의 교류가 이뤄진다면, 아이팀을 더 다채롭게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학술면과 문화면이 혼용된 느낌이 있다는 점과 학술면의 내용이 너무 인문학에 치중되어 있다는 점도 고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스포츠, 토크쇼, 토크쇼, 토크쇼를 최근 동향을 담아내는 아이팀을 학술면에 적용시킨다면 이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으로 한성대신문이 나아갈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

- 대학 신문은 대학 문화를 선도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성대신문은 앞으로 취재, 학술, 사회, 문화면에 국한시키지 말고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런 일환으로 다른 학교와의 연계, 학생 자문단 설치, 교수·대학원생과의 교류 등으로 더 폭넓은 취재원을 확보해야 하겠다. 또한 더 좋은 신문 제작을 위해 현재의 학생 기자정원을 추가적으로 확충해야겠다.

신문에서는 매 학기마다 신문 디자인에 변화를 주고 있다. 이번 학기 신문의 전반적인 디자인은 어떻게 생각하냐.

- 기본적인 면 구성이나 기사의 출처는 일반 신문과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

교직원에게 들었습니다

엄재용(학술정보팀)팀장

우리 신문은 총 8개의 지면마다 주제별 정하고 각각 그에 걸맞은 기사를 실고 있다. 기사의 소위와 지면의 주제가 적절하게 어울렸다고 생각하냐.

- 취재면의 경우 종종 적합하지 않은 소재가 등장했다고 생각한다. 매수를 채우기 위해 어떤 것이든 넣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학교의 규모가 작아서 기사거리가 많이 생기기 않는 점에 오는 한계라고 생각한다. 이는 학교 사정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일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의 8개 지면을 개편하거나 새 코olumn이 들어간다면 무엇이 좋을까.

- 전문적이고 심오한 내용의 기사는 학생들에게 외면당하기 십상이다. 이것이 지면을 채우기 위한 방법이라면 그냥 면수를 줄이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그 거리에 학생들의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기사가 들어갔으면 한다. '고재의 소위' 같이 학생들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이는 내용이 좋을 것 같다.

이으로 우리 신문에선 읽고 싶은 기사가 있다면 무엇일까.

- 학교와 학생들의 근황에 관심이 많아서 주로 취재면이 중점을 두고 신문을 읽는 편이다. 낙산의 매리 기사에서 최근 논란이 있던 대동제학 학생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논쟁에 관한 기사를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혹은 취재면 성취한 졸업생의 인터뷰를 통해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정보와 애교를 줄 수 있는 기사가 있었으면 한다.

블로그, SNS와 같은 1인 미디어와 인터넷을 통해 쉽게 신문을 읽을 수 있는 시대다. 종이신문을 만드는 확보는 어떤 방향으로 진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냐.

- 학생정보도 2층 로비에 최근 전자신문을 읽을 수 있는 기계가 생겼다. 이처럼 학술정보관에도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공존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뉴스 모바일을 읽는 것보다 지면 위의 글자를 읽는 것이 더 편하다. 대학신문이 디지털화 되면 구독률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예전에 비하면 대학신문의 열독률이 현저히 떨어진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실정을 개선하고 신문을 널리 읽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무엇이 있을까.

- 개인주의적 사고방식의 확산으로 학교에 대한 관심이 떨어진 것이 원인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얼마 전 '자외선의 한사' 행사에서 SNS와 무선마우스 결합 추천 행사를 통해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한 것처럼 신문도 흥미 요소를 첨가하면 해결 될 문제라고 본다. 이는 신문사 예산과 직결되는 부분이 많아서 대학신문이 예산이 적다고 할 것이다. 간부 장학금과 같이 신문의 품질이 높아져서 많은 학생들이 신문을 읽게 되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한성대신문이 나아가야 할 길은 무엇일까.

- 현재도 학교와 학생 사이에서 균형을 잃지 않고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제자리에 머물러 있고 계속해서 새로운 것에 도전해야 한다고 느낀다. 실험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지영 기자 gujyong@hansung.ac.kr

기사수정

달콤 쌉싸름 했던 '신문사씨'와의 연애

이 신문이 나오면 2009년 10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약 2년간의 지난그와 연애는 티비까지를 향해 달려가게 된다. 성은 '신'이요, 이름은 '문사'씨. 36세의 도도한 여자씨로 현재는 나를 포함한 5명의 대학생이 그와 연애 중이다. 그는 정통적인 나쁜 남자로서 2, 3주마다 한 번씩 연고를 투옥하고 있다. 또 연애에 있어서 철저한 준비와 사전조사를 하지 않으면 엄청난 마감박을 안겨주기도 한다. 마감박을 견디며 밤새 한 호의 신문을 만든 후 이걸 만들었다는 뿌듯함이 밀려오는 걸 보면 '문사씨'는 정말로 기자를 몰랐다고 보았다. '말단의 귀재'이다.

기자는 수습기자와 정기자의 경계선에 있을 때부터 문화부담을 맡게 되었다. 지금처럼 총장표회의와 마감이 겹칠때면, 지금처럼 장악적일수록 오디션과 마감이 겹치는 한 주가 되면 정말로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바쁘다.

한 때는 위기가 찾아왔지만 지금 생각하면 즐겁고 행복하고, 절한 일인 것 같다. 읽기다 읽긴 그그와의 연애를 통해 '고생苦的 달콤함'을 수없이 맛볼 수 있었으니까.

이재민 기자 odory1@hansung.ac.kr



2011년 육군 대학 軍 장학생 모집

Republic of Korea Army

지원자격

- 연령: 입관일 기준 만 20 ~ 27세 남성
- 학력: 4년제 대학 학과입학이 되어있는 1, 2, 3학년
- 신체조건: 동의와 재검토보통합격기준 가능한다

지원서류접수

- 인터뷰 육군본부 홈페이지 접수
- 서류제출(육군 인사서장부)

모집기간 : 2011. 5. 2 ~ 7. 8

선발절차

- 1차: 필기(영어, 서문)
- 2차(최종): 대학선정, 면접평가, 체력검정, 신체검사, 인성검사, 신원조회

복무기간

- ROTC: 6년 4개월
- 학사장교: 7년

대우 및 특전

- 매학기 장학금 지급
- 의무복무기간+장학금수혜 기간 추가 복무
- ROTC(지원사) 및 학사장교로 임명
- 국내 민간 대학원 석·박사 위탁교육 기회 부여 (장기복무선발자)
- 미국 및 우방국 군사교육 기회 부여(장기복무선발자)

문의처 및 모집안내

- 각 대학 육군본부
- 육군 인사서장부 선발담당관: 02-506-7144 / 042-550-7144
- 육군대표전화: 1588-6953(육군으로 오심)
- www.goarmy.mil.kr (육군 모집)

육군본부
www.goarmy.mil.kr (육군모집)
전국 대표: 1588-6953

NAVER 24시간 육군모집

<표현 능력 상담 프로그램> 신청자 모집

2011년 1학기 한성대학교 사고와 표현 교육과정 위원회에서는 본교 재학생들의 표현 능력 신장을 위하여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재학생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목 적 ◎

1. 면대면 상담을 통한 개별 학습자의 글쓰기 고민 해결
2. 논리적이고 구조적인 사고능력과 표현 능력 향상
3. 전공과목과 교양과목의 리포트를 체계적으로 작성하는 능력 향상
4. 글쓰기와 프레젠테이션 문서 작성 능력 향상

상담 신청 방법

1. 신청 지역: 한성대학교 재학생
2. 상담 기간: 2011년 3월 14일(월) ~ 2011년 6월 10일(금)
3. 상담 영역: 리포트, 프레젠테이션 문서, 서명, 칼럼 등
4. 신청 방법: writing center 홈페이지(상담) 메뉴 이용 (http://writingcenter.hansung.ac.kr/)
5. 상담 내용: 맥락 파악, 주제 이해, 아이디어 생성, 글의 전개, 문장 표현 등
6. 기타 문의: 사고와 표현 연구실(연구부 B101, ☎ 02-760-4354)

상담 진행 방법

1. 상담 신청은 writing center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제를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2. 상담 희망 일시 48시간 이전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 현황은 MY PAGE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상담 진행은 상담원과 학생 간에 1:1로 이루어집니다.
4. 상담 시간은 학생 1명 기준으로 30분~1시간 이내로 이루어집니다.
5. 상담 신청자 유의사항
 - 1) 상담 신청 시 홈페이지의 신청 항목에 내용을 모두 입력해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 2) 상담 전에 과제 해결에 필요한 참고 자료를 미리 읽어와 합니다.
 - 3) 상담 시 과제 준비 과정과 준비한 글을 개발자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고와 표현 교육과정 위원회



대디 주점의 전설은 유령의 집

낙산가요제 초청가수 LV

나눔콘서트 MC를 보고있는 오상진 아나운서와 방송인 슬비

초대가수의 무대를 보고 있는 학생들

관객과 MC가 함께하는 셀카

흑인음악 동아리 TRIAX

객석과 함께하는 노래

학생총회 홍보활동 중인 사과대 학생회장

낙산가요제 대상 고려대 가왕밴드

학생들이 무대공원에 열광하고 있다

초청가수 4minute

영어영문학부 라운지 파티

한성대학교

π Festival

5.25 ~ 5.27



운동권과 비운동권

이분법적인 구분 대신

대학생의 시대적 역할에

대해 생각해달라



광화문 광장에서 반값등록금 외치는 한국대학생연합 박자은 의장 인터뷰

‘미친 등록금과 그로인해 높아지는 청년 자살률, 고질적인 청년실업 문제까지 현재 대학생을 둘러싼 사회문제를 모르는 사람은 이제 없다. 하지만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적인 행동을 모색하는 대학생은 찾는 것은 쉽지 않다. 일명 ‘스펙’을 쌓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시대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 중에도 세상을 향해 용기있게 나서며 변화를 당당히 요구하는 대학생들이 있다. 바로 반값등록금 촛불집회의 시작을 알린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이하 한대련)이다. 지난 달 29일, 한낮에 광화문 광장에서 펼쳐진 반값 등록금 축제는 사그라들 줄 모르고 날을 더해갈수록 더 많은 대학생들을 운집시키고 있다. 대학생들이 외치는 슬로건은 ‘조건 없는 반값등록금 즉각 이행하라’이다. 이들의 투쟁에 연예인, 정치인, 일반인들도 거들기 시작했다. 서서히 대학의 문제가 공론화되고 있다. 한대련의 반값등록금 촛불집회로 시작된 등록금 인하바람이 사회적 논의로 확대된 것이다. 이쯤되면 공공해진다. 세상을 향해 당당히 주장하고 행동하는 이 대학생들은 과연 평범한 대학생일까.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 학생일까. 반값등록금 대회를 주최한 한대련의 박자은(수명여대 총학생회장)의 입장을 만나 보았다. (편집자주)

〈질문 1〉한대련은 ‘운동권 학생들의 모임’이라 생각하는 일반의 의견이 많다. 실제 한대련은 어떠한 대학생들이 모여 무슨 활동을 하는 단체인가.
-한대련은 전국 학생들을 위해 일하는 학생회 연합 조직체로 생각하면 된다. 청년실업문제 해결, 대학생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일하고 있다. 대학생에게 요구되어지는 대외적인 역할, 세대적으로 봤을 때 20대 젊은층의 역할들을 함께 해 나가려 한다. 사실 운동권, 비운동권 구분을 좋아하지 않는다. 사회적 구분에 따르면 물론 나는 운동권이겠지만 학생회 조직이라면 운동권, 비권 구분보다는 학생회가 학생들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할 수 있는가로 평가해야 한다고 본다. 학생들을 위해 열심히 한다면 그 사람이 운동권이건 비권이건 상관없지 않을까. 흔히 운동권이라고 하면 대내외적으로 요구되는 대

학생의 역할 두개를 같이 해나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인데, 비권이라 하는 사람들은 대외적으로 요구되는 부분을 정치적이거나 활동하지 않는 걸 말한다. 그런 걸 봤을 때 대학생의 역할을 어디까지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 같다. 어느 쪽이 더 좋다 하기 어렵지만 개인적으로는 대학생에게 시대적으로 요구되는 역할과 일이 있다고 보고 그걸 마땅히 해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것을 운동권이란 이름으로 폄하하는 건 어렵다. 이분법적인 구분을 벗어나 지금 이 일이 우리 대학생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보았으면 좋겠다.
〈질문 2〉그렇다면 대학생의 역할은 어디까지라고 생각하는가.
-사회문제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래, 넌 나중에 정치하

고 싶으니까’라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지금은 정치인에 뜻이 없다. 나중에 나이 들면 산 좋고 물 좋은 시골 어딘가에 한옥을 짓고 그림 그리며 사는 게 개인적인 꿈이다. 내가 사회 문제에 참여하자 말하면 ‘너나 해라’며 비난하는 분도 있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현재 기성세대의 사회문제는 몇 년 뒤 우리의 문제가 된다. 순환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모두에게 20대의 삶, 30대의 삶, 40대의 삶, 90대의 삶까지 있을지 모른다. 한 사람에게 부여되는 역할이 일평생 하나는 아니라는 이야기다. 지금은 내 일이 아닌 것 같아도 언젠가는 나의 일이 될 것이다. 10년, 20년 지나면 내 일, 내 아이들의 문제, 즉 언젠가는 나의 일이 된다. 사회 문제라는 게 학교 안에 있으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우린 결국 학교 밖으로 나갈 사람들이다. 게다가 중고등학생 입장에서 보면 대학생은 사회인이다. 지금 당장 내 문제가 아니라 구분해서 생각할 수 없는 이유다. 등록금 문제도 그렇다. 우리가 바라는 건 결국 사회 각계각층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 대학생들도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게 공평하고, 옹당 그렇게 해야 다른 세대들도 대학생의 문제에 공감해 줄 것이라 생각한다.
〈질문 3〉이번 해 상반기, 대학사회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 가장 주목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 생각하냐.
-많은 일이 있었지만 특히 경희대의 학생

총회 성사에 주목하고 싶다. 사실 내 입장에 서야 모든 일이 큰 일이다. 옛그제 29일, 광화문 집회로 수십 명의 대학생이 경찰서에 잡혀간 일, 개인적으로 머리카락을 자르게 된 일, 서울대 공간 점거 등의 사건이 많았지만 그 중 하나를 꼽자면 보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 자기 문제에 결정하려 했고, 결정했던 것이 학생 총회였기에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본다. 학생자치에 있어 최고 의사결정 기구가 아닌가. 학생총회의 성사는 학생회와 학생 양자간의 노력으로 빛이진 결과물이라고 생각한다. 짝사랑에 비유하자면, 혼자 마음이 통하면 이루어지지 않듯 학생회나 학생 둘 중 한쪽만 열심히했다면 이루어지지 않았을 일이다.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학생들도 의식이 한 단계 높아지고, 학생회도 부쩍한 책임감을 가지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질문 4〉‘우리가 이란다고 뭐가 달라질까’라는 허무감과 패배주의에 젖은 학생들이 많다. 이러한 현상이 해결될 수 있을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참여로 뭔가 바뀔 것을 체감한다면 그러한 생각도 바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학생총회가 가능했던 것도 첫 물꼬를 트기가 어려웠을 뿐 경희대의 경우처럼 성공한 경우를 보면 학생들이 우리 학교도 가능하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등록금 문제라는 것도 이런 과정이 있었기에 여·야당 할 것 없이 정치계의

합이슈가 되지 않았는가. 이 과정을 지켜본 학생들이라면 ‘반값 등록금 가능할 수도 있겠다’고 기대할 것이다. 다가올 선거에 반값 등록금 문제가 공약으로 발표된다면 우리의 참여로 사회가 변화했다는 걸 느끼고 보다 많은 학생들이 희망을 갖고 참여할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학생회 활동을 시작하면서 다수가 관심을 가지면 충분히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무관심 때문에 방치되고 있는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른 학생들도 문제를 인식한다면 선뜻 같이 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 같이 경찰서에 갈 필요는 없지만 서명에 참여를 한다거나 투표를 한다거나 하는 것들은 모두 충분히 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질문 5〉학생시절부터 적극적인 학생이었는데 궁금하다. 개인적으로 사회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편이었는지.
-학생시절 남다른 학생은 전혀 아니었다. 사회문제에도 사실 별다른 관심이 없었다. 순수문학을 지향하는 ‘은둔형 외톨이’ 느낌의 문학소녀였다. 그렇다고 대인관계가 나쁜 것은 아니었지만 말이다. 대학에 진학해 학생회를 시작하며 많이 바뀌었다. 신입생 팬 회의감도 많이 들었고 개인적으로 좋지 않은 시기였다. 뭔가 가치있는 일을 하고 싶단 생각에 학생회를 시작했는데 사람들을 만나 일하면서 자괴감도 사라지고 스스로가 밝게 변화하는 것을 느꼈다. 나를 행복하게 한 것이

학생회였고, 학생회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 준 학생들에게 보답하기 위해 열심히 살고 싶다.
〈질문 6〉결과적으로 그리는 대학과 대학 사회의 청사진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다.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 이상적인 대학사회라는 기준을 찾기는 어렵다. 다만 대학 내 구성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대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구성원의 숫자만큼 바라는 대학은 다를 거라 생각하지만 다양한 가치와 견해와 생각이 존중될 수 있는 대학사회가 된다면 좋겠다.
요즘 반값등록금 투쟁으로 바쁜 박자은 의장을 만나기는 쉽지 않았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간담회에 참석하고 끝이어서 집회에 나가기 전, 약 30분의 촉박한 시간동안 만난 박 의장은 등록금 투쟁을 하며 삭발을 집행하는, 땀과 눈물로 한참 땀 흘리는 ‘무서운’ 대학생이 아니었다. 그는 어질러진 교내 총학생회실에서 ‘그럼 저는 운동권인가요?’라고 농담을 던지며 쾌활하게 웃는 발랄한 여대생이었다. 이런 그의 어디에서 ‘반값등록금’을 외치는 카리스마가 나오는 것일까. 기자가 만나본 그는 개인적인 이익에 급급하기 보다는 사회에 대한 고민을 하고 행동하는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대학생이었다.

이성이 기자 sangmi@hansung.ac.kr

2011 송암문화재단 다문화 장학생 선발 요강

- 대상 : 다문화 가정 자녀로 가정 형편이 어려운 재(현재 재학중인 학생 대상)
- 지원금액 : 학기당 400만원
- 제출서류
 - ※ 제출서류 양식은 해당 홈페이지 참조 <http://www.songamfoundation.org/>
 - 송암문화재단 다문화장학생신청서
 - 자기소개서
 - 추천서
 - 다문화증빙서류(아래 항목중 해당 서류 제출)
 - 1) 가족관계 증명서(국제 결혼 자녀) - 부모(보호자) 명의로 발급
 - 2) 부모의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 가정 자녀)
 - 재산증빙서류

-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해당 증명서 제출
- 2) 그 외의 지원자
 - 2010년도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부모 각 1부)
 - 2010년도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 (부모가 각각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양쪽 다 제출)
 - 주민등록등본 - 부모(보호자) 명의로 발급
 - 재학증명서

■ 선발일정
- 서류 제출기간 : 6월 24일(금) 17:00

■ 서류제출처
우)110-140 서울시 중로구 수송동46-15 송암다문화장학금 담당자 앞(전화 : 723-0441)

| 사 설 |

집단 지성

인터넷 덕분에 다양한 지식을 손쉽게 접하고 익힐 수 있게 되었다. 더 많은 지식을 접하게 되었으니 우리의 사고력이 이전에 비해 높아져야 하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다. 이...

만약 집단지성이란 개념을 여기까지만 알고 있다면 분명 단편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다. 전체조건이랄까,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대중의 지혜'의 저자 제임스 서로위키는 집단지성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한 세 가지 전제조건을 이야기 한다. 다시 말해 집단지성의 위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전제조건을 명확히 이해하고, 이 조건의 관점에서 집단의 판단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세 조건은 다양성, 독립성, 본산화와 통합이다.

집단 지성이란 평범한 개인일지라도 그들이 모인 집단의 사고력은 뛰어난 개인의 사고력보다 더 정확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믿음이 탄생한 배경에는 프란시스 골본이라는 통계학자의 역할이 컸다. 그는 측정하고 통계 내기를 좋아해 별의 별 것을 다 측정했다. 그리고 그런 측정치에 토대를 둔 엉뚱한 주장을 많이 해 관련 사계에서 진지하게 다루지는 않는 인물이다. 예컨대 골본학에 심취해 수많은 인종의 머리의 형태를 측정하고 이마가 높고 넓은 백인의 지성이 가장 뛰어나다는 인종차별적 주장을 했다. 골본의 주장 가운데 드물게 진지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 집단지성의 우월성에 대한 그의 믿음이다. 골본 역시 노년에 이르러서 "좋은 교육을 받은 소수가 사회를 지배해야 사회가 안전하다"고 믿었다. 그러나 가족 품평회장을 둘러보면 골본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된다. 마침 소의 무게를 맞히는 게임이 진행 중이었다. 골본이 이를 보고 가만있을 리가 없었다. 그는 800명의 참가자들이 낸 답의 평균을 내보았다. 결과는 1197파운드로 실제무게인 1198파운드와 1파운드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그는 이를 계기로 민주주의가 생각보다 우수한 제도라고 믿게 된다.

'다양성'은 동질적이지 않은 여러 집단이 판단과 결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의 무게 맞히기의 경우를 보면 가족 전문가보다 일반인들이 더 무게를 잘 알아 맞았다. 다양한 직업, 다양한 관점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이다.

'독립성'은 집단을 구성하는 개인들이 서로에게 가급적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서로의 의견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면 '다양성'이 약화되기 때문이다. 이 대목에서 인터넷이나 각종 SNS의 역할에 의문이 든다.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상호존중과 관용이 담보되지 않으면 이런 미디어는 개인의 독립성을 심하게 훼손할 것이기 때문이다.

'본산화와 통합'은 다양하고 독립된 집단이 존재하되 이들의 판단을 통합하는 건강한 매커니즘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견제와 예단이 없는 정직한 매커니즘이 판단을 통합하고 가감없이 공개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집단지성이란 개념이 얼마나 무겁고 임중할 것인지 짐작하게 된다. 쉽게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의 화 정



이충진 교수 (교양학부)

지난 한 달 동안 나는 주말 약속을 잡지 않았다. 일요일 저녁에 방송되는 <나는 가수다>를 보기 위해서이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임재범을 보기 위해서이다. 그가 TV에 나온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흥분과 걱정으로 내 가슴이 마구 뛰었다. 만일 노래만으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가수가 있다면, 듣는 사람의 마음에 감동만이 아니라 존경심을 불러 일으키는 그런 가수가 있을 수 있다면, 나는 오래 전부터 임재범이야말로 그런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그의 풍장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마치 산 속에서 멧돼지를 잡으려 뛰어들다 막 무대로 올라온 듯한 이 남자는 그 무대가 자신 인생의 전환점을 분명히 의식하고 있었다. 50을 바라보는 나이, 그는 지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그 동안 참으로 힘들게 살아 왔구나.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 이곳에서 또 최선을 다하자.' 그렇게 자기 자신을 다독이고 있었다. 그것은 젊은 시절을 묵숨 곁고 살았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자기 위로였다. 그가 부른 <너를 위해>에는 훌륭한 가수가 되기 위해 그가 치러야 했던 지난날의 고통과 처절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일주일 후 그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무대 위에 올랐다. 자신을 되돌아보면 눈은 이제 관객을 향해 불

을 뿜었다. '당연히 일등이 되고 싶고' '여전히 피가 끓는' 이 남자는 천 개의 귀 앞에서 자신이 최고임을 입증하고 싶어 했다. 평생 동안 한 길만을 걸었던 사람, 단 한 순간도 결단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었던 사람, 오직 그런 사람에겐만 허락되는 자존심은 무대 위의 그를 청중 앞에 선 가수가 아니라 적군 앞에 선 장수로 만들었다. 그가 원했던 것은 청중의 동감이 아니라 청중의 항복이었다.

세 번째 무대에서 <여러분>을 부르며 그는 눈물을 흘렸다. '이제는 노래를 부르며 행복해지고 싶다.'는 이 중년의 남자는 행복의 조건이 다름 아닌 '여러분'임을 비로소 깨달은 듯이 보였다. 뒤늦은 깨달음에 그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그의 눈물이 결코 값싼 눈물이 아님을 청중은 기립박수로 인정했다. 음정도 박자도 더 이상 문제되지 않았다. 그와 청중은 사람과 사람이 진정으로 만나는 지점이 어디인지, 그곳이 어떤 곳이어야만 하는지, 그것을 함께 확인했기 때문이었다.

동료 가수 한 사람은 '한 곡을 들은 것이 마치 한편의 영화를 본 것 같았다.'라고 말했지만, 세 번의 무대를 지켜본 나는 마치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지켜본 듯한 느낌이었다. 그의 인생에서 어렵지 않게 읽어낼 수 있는 드라마틱한 스토리를 말하는 게 아

나의 불편한 친구 임재범

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껍데기일 뿐이고 그것만으로는 그의 절규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내 눈에 보였던 것은 진정성으로 가득한 그의 삶이었다. 자신의 음악에 대한 진정성, 자신의 삶에 대한 진정성! '프로 가수'가 되기 위해 치러야 했던 고통의 원인이자 '프로 인간'이 될 수 있게 만들어준 힘의 원천인 자신에 대한 진정성!

돌이켜보면 그와의 만남은 처음부터 불편한 일이었다. 자신의 참된 모습을 직면할 용기도, 최고가 되기 위한 강렬한 정열도, 타인을 있는 그대로 품어 안을 넉넉함도 갖추지 못한 나에게 그의 노래는 가족 한 채찍과 다름없었다. 그래서 나는 그를 떨쳐버릴 수 없었는데, 그는 내게 언제나 '진정성은 너의 일상을 언제나 신화로 만들 수 있다.'라고 말해주는 진정한 친구였기 때문이다. 그렇다. 그는 언제나 나의 '불편한 친구'였다.

한국 가요계의 전설이었던 임재범은 이제 우리의 일상이 되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의 일상을 전설로 만들었다. 그를 친구로 만드는 것은 힘들고 어렵겠지만 충분히 시도해 볼만한 일이다. 언젠가 내 삶을 뒤돌아볼 때 그 안에서 하나의 전설을 보고 싶다면 말이다.

451호를 읽고

1. 가장 마음에 들었던 기사: 취재기획면 "한성대 신문은 위기에 빠져 있는가?"

한성대신문 뿐 아니라 한국 대학 학보의 성격과 변천에 대한 고찰이 돋보이는 좋은 기획이었다고 생각한다.

학보가 쇠퇴한 원인(진보적 언론매체가 다양하게 나타나면서 대학 학보의 차별성 및 매리트 상실)이라든가, 앞으로 대학 언론이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심사숙고 했다는 것이 기사 면면에 드러난다.

독자로 하여금 학보 제작의 애환(과)과 고충에 대해 한번쯤 다시 생각하게 해주는 계기를 제공했다고 보여진다. 본래 내부의 자아비판은 외부의 피드백보다 어려운 측면이 있다.

외부의 시선이야 어찌되었든 피와 땀의 성과물에 대해 내부에서는 그다지 흡이 눈에 띄지 않는 것은 어찌보면 인지상정이다.

그러나 진정 언론보도의 시작이 비판이듯이 본 취재기획은 안팎으로 얻는 바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 내부 고발이 한성대신문의 발전과 성장에 밑거름이 되길 축원한다.

2. 가장 아쉬웠던 기사: 학술서평 "정의의 정의란?"

먼저 서평 도서 선택 자체가 조금은 구태의연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마이를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은 저자가 하버드대 교수하는 것만으로 벌써 많은 이들이 주머니를 털어가며 구입하고 있고 얼마

전 이명박 대통령은 이 책을 읽고 감명받은 나머지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입기 내 정책방향을 '공정사회'로 정했다고 한다.

나는 학보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사 보는 (심지어 대통령까지도!) 책을 선택해 독자에게 제차 권하기 보다는 세인들이 미리 발견하지 못한 좋은 책을 찾아내 소개하기를 바란다. 그것이 대학 언론이 가져야 할 진보적인 자세가 아닌가 생각한다.

본래 정의란 시대와 역사를 초월하는 가치로서 진리와 상통하는데 기사 말미에 '정의는 시대에 따라 변천할 수 있다'는 식의 논리의 의견은 공감하기 어렵다. 지극히 기득권층과 지배층의 헤게모니가 주입되어 있는 편향된 정의(definition)가 아닌지? 학보다는 젊음과 참신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의견이다.

덧붙여 기사가 시종일관 저자의 시각과 의견을 정리하는데 그저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마이클 샌델의 의견을 영무세처럼 반복하는 것인지를 책을 통해 독자의 사고의 신장을 돕고자 하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3. 아이템 제안: 교수와 학생 간 대화의 정의를 학보의 문제제기에 크게 동의한다.

이 장에 기획연재기사로 각 단대별 학부별로 학생 한 명과 교수의 면담, 담화록 현장 취재하고 보도해보면 어떨지?

4. 각 면 평가: 취재면 - 미래권 열람실의 탄력적 운영은 현재 교내에서 큰 논란을 빚고 있는

사안이니만큼 보도 시점이 적절했다고 보인다. 이용률이 턱없이 부족한데 비해 유지 비용은 높아 이로 인한 학교 측의 고충을 엿볼 수 있는 인터뷰와 함께 학교 본래의 목적을 지켜야 한다는 몇몇 학생들의 대치된 의견을 모두 수집, 정리해 그 첨예함을 일목요연하게 엮을 수 있어 좋았다.

사회면 - 대학생 사교육비 비율 보도와 함께 비교적 형편이 넉넉한 학생들의 장학금 수혜로 많은 학생들이 생활 고 및 학업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보도한 '장학금의 역할' 기사로 현재 대학생들의 고민의 근본을 잘 이르집어 기사화하였다고 생각한다.

본래 장학금이란 장래가 촉망되지만 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지속하기 힘든 형편의 학생들에게 시의적절하게 도움을 주려는 의도로 만들어졌다. 그런데 대부분의 장학금이 성적 위주로 편성되어 지급된다 보니 정작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혜택이 미치지 못해 본말이 전도된 격이다.

또 대학생 사교육비 비율에서 알 수 있듯 부유한 학생은 자연히 학교 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 그렇지 못한 학생들에 비해 성적이 좋을 가능성이 확연히 높다.

이번 사회면의 일련의 보도가 장학금과 관련한 이러한 부조리와 악순환을 참작, 고려하도록 하는 호소로 받아들여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문화면 - 가끔씩 대중영화 한편을 보고, 유형

김미래 (역사문화 4)

한성대신문사 제36기 수습기자 모집

한성대학교의 살아있는 역사, '한성대신문'을 함께 만들 제36기 수습기자를 모집합니다.

학내 소식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현상과 문화를 대학생의 시각에서 바라보며, 독자들과 대화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글쓰기와 토론, 신문 제작에 관심 있는 분들도 신문사의 문을 두드리세요. 20대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 모집 대상: 1, 2학년 재학생
• 모집 기간: 6월 30일(목)까지
• 모집 전형: 지원서 접수 후 필기시험 및 간단한 면접
• 기자 특혜: 기자 교육, 활동비 및 원고료 지급
• 문의처: 02)760-4186
010-7124-5831(편집국장)
• 위치: 기업은행 맞은편 학생회관 제1별관 2층

한성대신문사

2011-하계 365일 캠퍼스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신청 안내

365일 캠퍼스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강좌를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오니 학생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교육과정
• 교육기간 : 2011. 6. 27(수) ~ 2011. 8. 26(금) - 강좌별 교육기간 이상임함
• 대 상 : 재학생
• 개설강좌 : 4개 강좌(Start 365 홈페이지 교육과정 설명 참조)
• 수 강 료 : 교육훈련지원금(80% 지원)선착감 방식 / 본인부담금(20%)
* 본인부담금(20%)는 출석률이 80% 이상일 경우에는 반환함.
● 접수방법
• 신청기간 : 2011. 6. 1(수) ~ 2011.6. 17(금) - 강좌별 선착순 마감
• 접 수 처 : 취업창업지원팀(우촌관 9번 창구, 담당 오순영)
• 신청방법 및 관련문의 : 방문접수 / 760-4295
● 등록안내
• 등록기간 : 2011. 6. 1(수) ~ 2011. 6. 17(금)
• 계좌번호 : 기업은행(689-000276-04-629 / 예금주 : 한성대학교)-본인학번으로 기재
* 신청서 양식은 한성공지(글번호 3828)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사용 하세요

<2011-하계 365일 캠퍼스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설강좌명>

Table with 7 columns: 프로그램명, 소속, 담당교수, 교육기간, 교육시간, 본인부담금, 장소. Rows include 교원임용고사 특강 I, 교원임용고사 특강 II, 컬러리스트 과정, (산업기사) Environmental, Graphic Design.

그 많던 꿀벌은 다 어디로 갔을까?

꿀벌 실종 현상 지속될 경우 식량 안보에 적신호 켜져

지난 3월 유엔환경계획(UNEP)은 "1990년대 말부터 미국과 유럽에서 뚜렷하게 관찰된 꿀벌 개체 감소세가 아시아와 아프리카, 중동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특히 중국에서는 과수원을 운영하는 농부들이 꿀벌 대신 직접 꽃가루받이에 나서야 할 만큼 벌집군집붕괴현상(CCD, colony collapse disorder)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벌집군집붕괴현상이란 꿀과 꽃가루를 채집하러 나간 일벌들이 벌통으로 돌아오지 않아서, 벌통에 남은 여왕벌과 애벌레 및 기타 미성숙 벌들까지 한꺼번에 폐사하는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으로는 휴대전화의 전자파, 신종 바이러스, 기생이변, 유전자 변형 작물 등으로 추측되고 있다.



양벌이 신란하여 새 여왕벌을 만들었을 때, 새 여왕벌을 일벌의 일부와 함께 된 짝이나 통으로 길러 올리는 것시기에 발견되는데, 분봉 시기가 아닐 때 이런 소리가 들리면 꿀벌 집단에 큰 혼란이 발생했다는 신호이다. 보고서는 "휴대전화 전자파에 의해 발생한 이 소리가 예상치 못한 분봉 사태를 유발해 꿀벌 개체수가 급감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한편 꿀벌 실종 사건의 또 다른 원인으로 신종 바이러스가 지목되고 있다. 지난해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남충봉아부패병'은 전국의 양봉 농가를 초토화시켰다. 남충봉아부패병은 애벌레가 부패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이다. 건강한 애벌레는 원래 탕탕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지만 이 병에 걸리면 호를호를하게 변해 부패를 일으킨다.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애벌레는 일벌 10만 마리를 감염시킬 수 있는 정도로 전염성이 강하다. 애벌레의 치사율은 100%에 달하지만, 벌은 수명이 짧

은 탓에 후천적 면역을 갖추지 못해서 백신 개발이 불가능하다. 이미 국내 토종벌 35만 군 중 95%가 이 병으로 폐사했다. 이 때문에 올해 7월경 토종벌이 멸종할 수도 있다는 비관적 관측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기생이변 현상 역시 용의선상에 올라와 있다. 꿀벌은 온도에 상당히 민감해서 기온이 15도보다 낮으면 꿀 수확을 하러 나가지 않는다. 때문에 일부 학자들은 지구온난화에 의한 기후변화가 강한 스트레스로 작용해 꿀벌의 수가 감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급격한 일교차를 비롯한 이상기온현상으로 주변 밀원꽃이 나오는 식물의 생장이 저해되어 먹이와 꽃가루의 부족 등이 꿀벌의 생리적 장애를 초래한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사라진 꿀벌의 사체가 발견된 적이 없기 때문에 집단붕괴현상이 일어나는 명확한 원인을 규명하기는 곤란하다. 다만 과학자들은 위의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아인슈타인은 일찍이 "꿀벌이 사라진다면 인간은 4년 안에 멸망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는 그만큼 꿀벌의 중요성을 역설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농촌진흥청 잠사양봉소재과 최용수 박사는 "꿀벌은 과채류의 화분매개를 통해 결실을 도와주고 품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수정이 필요한 식물의 약 30% 정도가 곤충의 도움을 받는데, 이 가운데 71%를 꿀벌이 담당하고 있다. 꿀벌이 가지는 생태계 보전효과는 약 50조 원에 달하며, 이 중 12조 5000억 원 규모의 국내 과채류 시장에서 약 50% 가량의 6조 원의 생산을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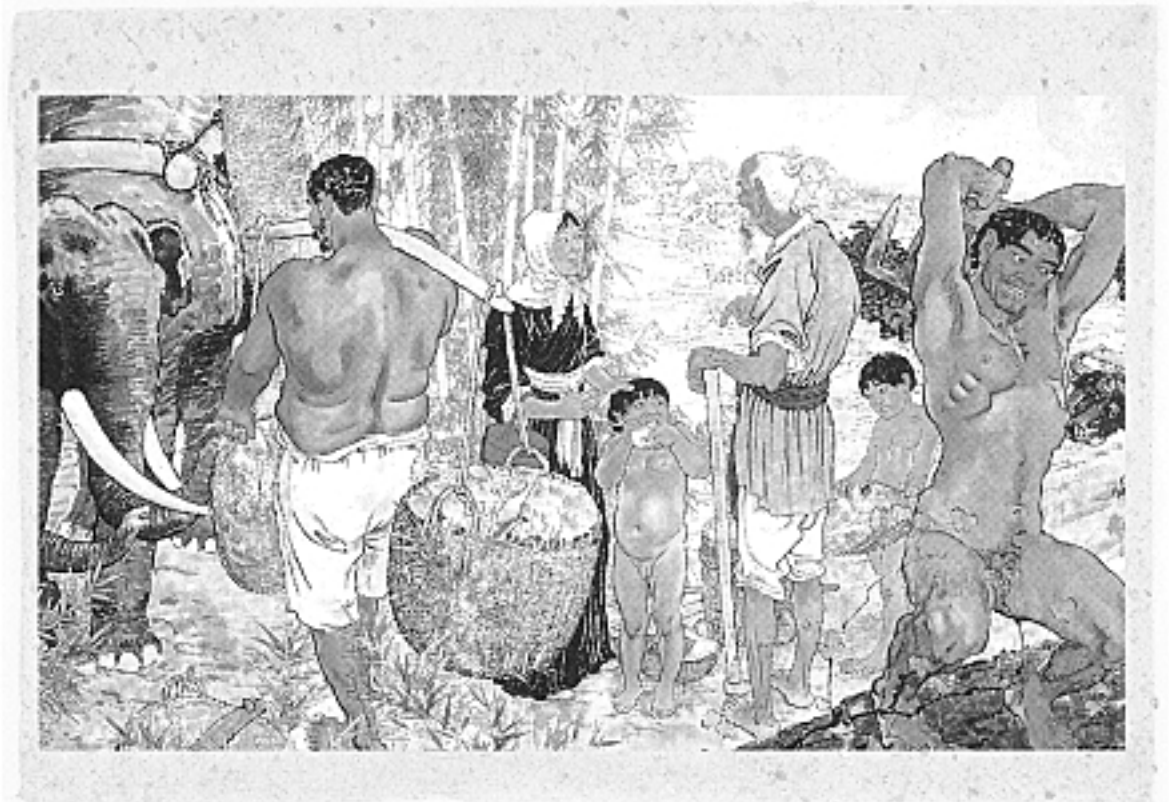
그렇다면 꿀벌이 멸종되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까? 이에 대해 최용수 박사는 "현실적으로 꿀벌의 꽃가루 매개 효과를 대체할 수 있는 곤충은 찾아보기 힘들다. 만약 꿀벌이 멸종한다면 식물의 생산이 매년 30%정도 감소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식물의 감소 또는 멸종은 가족의 사료부족으로 이어져 인류의 동물성 식량 감소까지 유발해 궁극적으로 인류의 생존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하게 일어난 동물의 죽음을 비단 꿀벌만의 문제가 아니다. 고래의 집단 자살, 구제어, 조류독감 등 지구 곳곳에서 동물들이 집단폐사하고 있다. 전자제품을 오랫동안 소중하게 쓰는 것만으로도 지구 반대편의 고릴라를 살릴 수 있다고 한다. 인간이 지구 멸망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자연을 동반자로 인식하고 동물과 다윈에게 자비를 구할 필요가 있다.

오영재 기자 guyomee@hansung.ac.kr

동양화 스토리

창작은 학문의 깊이와 광대함에 이르러야



▲ 서비홍 '우공이산(愚公移山)', 1940년, 수묵설채(水墨設色), 143x24cm.

최근 미술시장 분석 전문 사이트인 '아트프라이스'가 6일 발표한 '2010 미술 시장 트렌드'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경매에서 피카소 작품의 낙찰액은 총 3억6001만 달러(현재 환율 기준 약 3920억원)에 달했다. 2위는 3억3900만 달러에 달하는 피카소 작가 제백석(齊白石)이며 2009년 2위에 올랐던 앤디 워홀은 3위로 조사됐다. 지난해 상위 10위 안에 중국 작가의 제백석 한 명뿐이었으나 올해에는 장대천(張大千·4위), 서비홍(徐悲鴻·6위), 부포석(傅抱石·9위) 등 4명이나 포함돼 최근 경매 시장에서 치솟는 중국 미술의 인기를 반영했다.

중국의 근현대미술은 20세기 초 서구 미술의 확산을 부르짖었던 일군의 지식인, 예술가들에 의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고금부, 서비홍, 임풍면 등의 작가들은 서양화의 조형관념에 대한 이해를 배경으로 서구화의 현대적 재해석을 이루어냈다. 이후 1950년대에 들어오면서 중국 미술가들은 일상생활의 반영이라는 새로운 과제에 직면하여, 이를 바탕으로 시대상이 깊게 배어 있는 작품을 선보이게 된다. 중국의 대외개방 정책이 시작된 1980년대는 변화된 사회현실과 새로 유입된 문화의 영향으로 현대 미술에 커다란 변화의 계기가 이루어지며, 아울러 80년대 후반 이후 해외의 현대 미술에 자극을 받아 수많은 실험이 이루어졌다.

1920년대에 진독수(陳獨秀)와 강유위(康有為)가 '미술혁명'이란 구호를 내건 이후로 중국의 미술가들은 중국화(中國畫)와 서양화(西畫)에 대해 인위적으로 변형을 위한 탐구를 진행하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도 서양화 양식을 기반으로 한 변형의 노력이 가장 활발했다고 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째는 서비홍이 주도한 '차양홍중(洋與中)'의 모색으로서 즉, 서구 사실주의에 입각한 조형 관념을 가지고 중국화의 개조를 시도한 이 운동은 수묵화 혁신 실험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고 공격 색채를 많이 띤 운동이었다. 이를 실험은 강유위와 진독수가 주장한 '미술혁명'의 한 부분으로 예술 관념과 예술 양식에 대한 일종의 혁명이었다. 둘째는 서비홍과 임풍면이 주도한 모색으로, 서양 현대 미술의 사실주의 및 표현주의와 입체주의를 통하여 전통수묵을 재해석했다.

20세기의 중국 수묵은 개혁개방과 더불어 일기 시작하여 '차양홍중'과 옛 것을 통하여 오늘의 중국화를 새롭게 발전시킨다는 양대 맥락을 형성하면서 다양한 예술의 표현양식과 복잡 다양한 언어계를 새로이 모색하였다. 특히 서비홍은 현대 회화이며 미술교육가로서 강소성 선형에서 매우 가난한 농가집 아들 태어나 슬한 고생 끝에 상해에 갔다가 1917년에는 일본을 다녀오고 1919년에는 프랑스 유학을 떠나 각국을 여행하고 1927년에는 싱가포르를 거쳐 귀국하여 남경 중앙대학 화과장, 북경 국립예대 화과장을 지냈다. 그는 '창작은 학문의 깊이뿐만 아니라 광대함에 이르러야 한다. 또한 옛 법의 우수한 점은 지켜 발전시키되, 좋지 못한 점은 바꾸어야 하며, 아직 그 부족함이 있는 것은 서양 회화의 우수한 점을 융합하여 새로움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그는 당시 서양에서 유행하고 있던 각종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으면서 동양의 사의적(寫意的) 목재(墨彩)가 가지고 있는 내함성(內含性)과 시각적 측면에서 동서의 융합을 추구하여 독자적인 회화를 이루었다.

이근우 / 호 조선대학교 대학원 강사

학술서평

꿀벌이 없는 세상, 오지 말아야 할 미래

『꿀벌 없는 세상 결실 없는 가을』 /로완 제이콥슨 지음 /에코리브르



양봉농가의 폐사 사건이 예사롭지 않다. 꿀벌들이 집단으로 실종되거나 죽는 사건으로

인해 전국의 많은 양봉농가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미국, 프랑스 등 세계 각국의 양봉농가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일에 관심을 가지는 이는 적다. 자신들의 일이 아닌 그저 양봉농가에서 일어난 피해 정도로 여기기 때문이다.

책은 우리나라의 많은 양봉농가가 그렇듯, 꿀벌들이 집단으로 실종된 사건을 겪은 미국의 한 양봉농가를 조명하며 시작한다. 저자 로빈 제이콥슨은 그를 통해 미국 플로리다 각지에서 벌어진 양봉농가의 집단 폐사사건을 소개한 후, 선사시대부터 시작된 꿀을 얻기 위한 인간의 탐욕스러움을 정도의 집념과 양봉기술의 획기적 발전에 대해 이야기한다. 스페인의 바랑크론도라는 선사시대 시절의 동굴벽화는 꿀에 대한 인간의 탐욕과 집착의

역사가 얼마나 깊고 오래되었는지를 시사한다. 그리고 그는 벌의 진화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 밀랍을 이용해 된 나무 구멍이나 동굴 등지에 집을 짓게 된 한 꿀벌 종과 꿀에 대한 인간의 탐욕이 만나 양봉이라는 기술이 탄생했다고 그는 설명한다. 그리고 그것은 로렌조 랭스트로스에 의해 탄생한-현재까지도 조금 개량됐을 뿐 여전히 사용되어지고 있는-랭스트로스 벌통이 나오면서 정점을 이루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는 집단 폐사의 원인으로 꼽힌 가설들에 대해 하나씩 설명한다. 꿀벌 애벌레에 기생하여 그 체액을 빨아먹는 꿀벌응애에 의한 몰살설, 휴대전화의 전자파가 꿀벌의 더듬이나 뇌에 손상을 주어 벌통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되었다는 전자파설, 이스트라델 급성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에 의해 몰살되었

다는 바이러스 감염설, 강력한 살충제성분인 네오코티노이드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는 살충제 영향설, 그리고 면역결핍, 스트레스, 기후온난화 영향설 등. 많은 가설들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그 수많은 가설들이 시사하는 점은 하나다. 무리하게 자연을 개발한 인간의 탐욕이 불러온 인재라는 것이다.

꿀으로 저저는 꿀벌이 멸종했을 때 벌어질 수 있는 미래에 대해 이야기한다. 꽃은 피지만 열매는 열리지 않는 '결실 없는 가을' 사람의 노동력으로 모든 식물의 수정을 대체하는 세계. 그는 이 위험성을 말하며 우리에게 반성과 울적임을 촉구한다. 분주하게 일하던 정원이 고요 속으로 잠들 날이 그리 멀지 않았다.

백현우 기자 hyunwoo@hansung.ac.kr

2012학년도 학석사연계과정생 모집공고

2012학년도 학석사연계과정생을 대학원 학칙 제 6장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선발하오니 학부 재학생 여러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 모집 대상 : 2012학년도 학석사연계과정생 (일반대학원)
 - 2011학년도 해당 모집기간내에 지원하여 합격자에 한해 본 과정 이수
- 모집인원 : 총 20명 내
- 모집기간 : 2011년 6월 1일(수)~6월 10일(금) 14:00 (학과사무실 접수 후 교학팀에 일괄 제출)
- 지원자격 : 가. 5학기 이수 예정자(편입생 제외), 즉, 3학년 1학기 이수예정자 나. 90학점 이상 취득(예정) 다. 신청학기 포함 평균평점 3.5 이상
- 신청방법 :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 후, 각 학부(과/전공) 사무실에 제출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학부 누적성적 확인 출력본도 함께 제출)
 - * 현재 대학원 석사 과정 재학생 수가 5명 이상인 학과만 선발하고, 각 학부(과/전공)의 신청자 수는 3명을 원칙으로 함
 - *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생 수가 현재 5명 이상인 학과 : 사학과, 경영학과, 회화과, 문헌정보학과, 기계시스템공학과, 미디어디자인학과, 무용학과, 한국어문학과, 산업경영공학과(학과간협동과정 학과제외)
- 신청제출서류 : 학석사연계과정 신청서 1부(학부누적성적출력본 첨부)
- 선발예정일 : 2011년 7월초
- 선발 방법 : 학석사연계과정선발위원회를 통해 선발

- 1) 전체 모집 정원 내에서 각 학부(과)별 지원 학생의 비율로 성적순으로 선발하되 선발인원은 3명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3명 미만인 대학원 시행세칙 제8조 ①항에 의거 선발여부 심사)
 - 2) 선발 후 중도 포기자가 발생하는 학부(과)의 경우, 차기 2년 동안 선발인원에서 동 인원수 만큼 식감 함.
- 학석사 연계과정 주요 내용
 - 선발된 학생은 학부 재학 기간 중에 대학원 과목을 학기당 최대 6학점 수강 가능하고, 취득학점은 학생의 선택에 따라 학부 졸업학점 또는 대학원 졸업학점으로 인정. 단, 학부졸업학점 및 대학원 졸업학점으로서의 중복인정은 불허함
 - 학석사 연계과정 학생은 학부의 수업연한은 3.5년, 대학원의 수업연한은 1.5년임
 - 학석사 연계과정생에게는 대학원 입학금을 면제함
 - 선발된 학생은 각각 7학기 내에 학사졸업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대학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학석사 연계과정 자격을 상실하고, 학사졸업을 위해 8학기 이상 등록해야 함
 -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학원학칙 제 6장 및 한성대학교학칙(학부) 제 8장 제40조 참조
 - 학사졸업요건
 - 1) 학사 졸업 요건 충족 및 전 학년 평균평점 3.5 이상
 - 2) 학부 재학 중에 대학원 과목 6학점 이상 취득
 - 3) 해당 학기 대학원 입학 등록
 - 4) 학부 재학중에 연구활동계획서 2회 제출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학원교학팀(760-4271, 담당 이치형)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꿈과 환상의 스토리텔러 월트 디즈니 특별전

감동과 교훈의 이면에 숨겨진 그들의 땀방울



▲ 예술의 전당 한기람 미술관에서 월트 디즈니 특별전이 열렸다.



▲ 전시관 프로그램 북과 캐릭터 상품들을 구매할 수 있다.

월트 디즈니는 21세기 최고의 스토리텔링을 보여주었다고 평가되는 만화작가이다. 또한 그가 만든 월트 디즈니사는 미국을 대표하는 만화사로서 <백설공주>에서 <라퐁젤>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히트작들을 내놓았고, 평론가들에게도 지속적인 호평을 받고 있다.

이런 디즈니사의 작품들은 대다수가 동화나 우화에 의존하고 있음에도, 어른들에게까지 어필 할 수 있는 매력을 지니고 있다. 또한, 단순한 재미를 초월해 보는 이에게 감동과 교훈을 전달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무엇이 그의 작품에 이런 힘을 부여한 것일까?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예술의전당 한기람 미술관을 찾았다.

▲중세의 고전들에서 찾아낸 이야기의 실마리

전시관에 들어서면 삽화들을 많이 볼 수 있다. 대부분이 동화나 우화의 삽화들이다. 이를 통해 디즈니사의 애니메이션들이 대부분 유럽에서 전승되어온 동화, 우화, 신화 등에 모티프를 두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월트 디즈니는 이런 고전들에 대해서 "나는 집안 책장과 도서관에 꽂혀 있는 오래된 책들과 이야기들이, 우리의 애니메이션 작품으로 변용되어 다시 읽고 싶은 작품이 되길 꿈꾼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 이야기가 단순하게 모방된 것은 아니다. 이 이야기들은 만화로서 사람들에게 어필해야 했기 때문에, 변용의 과정을 거쳐야 했다. 특히 중세 유럽에서 유행한 이야기들은 잔인한 성향이 강했기 때문에 각

색이 필요했다. 전시관에 있는 텍스트와 그림들을 살펴보면 디즈니가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를 창조적으로 변용했는지에 대해서 알아 볼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제시된 것이 <인어공주>이다. 본래 <인어공주>의 내용에서 공주가 원하는 것은 왕자와의 사랑이 아닌 불사의 삶이다. 또한 결말 부분은 3백 년 동안 착한 일을 할 것을 권하는 정령의 모습으로 끝을 맺는다. 하지만 디즈니는 공주의 목적이나 결말 부분에 주목하지 않았고 공주가 인어로서의 삶을 포기한다는 모티프에 초점을 맞췄다. 그는 운명을 바꾸고자 하는 공주의 진취적인 모습과 사랑을 꿈꾸는 여성의 모습에 담긴 점이 있다고 보고, 둘을 조화시켰다. 덕분에 사랑을 얻으려 노력하는 진취적인 여성상이 인어공주에 그대로 드러날 수 있었다.

이처럼 디즈니는 이야기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특정 모티프에 초점을 맞추어 창조적인 변용을 이루어내었다. 이는 그의 다른 작품인 <미디어스 왕>, <미키와 콩나물>, <개구리 왕자>등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다.

▲환상을 위해 그려진 수백만 장의 그림들

전시관을 차지하는 대부분의 그림은 완성작이 아니다. 대다수의 그림이 컨셉 아트나 스토리 스케치, 모델 시트이다. 이 그림들은 주인공이나 배경, 소품들의 최종적인 스타일을 결정하기 위해서 그려진 것들이다.

월트 디즈니가 하나의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배경과 인물을 실제와 거의 동일하게 구

성해 완성도를 더했다는 점에서 철저한 고증과 검토는 필수적인 요소였다. 전시관에는 애니메이션의 장면들이 어떤 방식으로 고증을 거쳐졌는지 소개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로 <라퐁젤>의 머리커락 스케치를 들 수 있다.

라퐁젤의 긴 머리커락은 크나큰 골칫거리였다. 이에 대해 당시 CG 책임자였던 지저스 커넬은 "기본적으로 라퐁젤의 머리커락은 하나의 독립된 등장인물이었다. 즉, 공주에서 라퐁젤의 머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컸기 때문에, 정확한 표현을 위해서는 애니메이션의 기술과 스테프 간의 긴밀한 협업이 요구되었다"고 설명한다.

그의 말을 증명하듯 전시관에는 라퐁젤의 머리커락만 따로 스케치된 여러 가지 컨셉 아트들과 습작들이 전시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디즈니의 작품들이 그림의 질이라는 측면에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많은 습작들이 바탕이 되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새로운 애니메이션에 대한 끝없는 도전

전시관에는 단순히 그림이 담긴 액자만 걸려있는 것이 아니다. 작품에 사용된 효과들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식의 그림과 모니터들이 전시되어 있다. 이런 다양한 효과들은 당시로서는 하나의 도전이었지만, 디즈니사의 아티스트들은 이런 도전을 성공으로 이끌면서 애니메이션 자체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

이런 디즈니사의 도전 정신이 가장 잘 드러나는 작품은 이들의 첫 작품인 <백설공주와 일곱난쟁이>이다. 이 작품이 나올 당시

애니메이션은 6분 정도의 단편 애니메이션이 유행하던 시절이었음에도 <백설공주와 일곱난쟁이>는 장편으로 구성되었다. 이미 데뷔작부터 기존의 애니메이션에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디즈니사의 아티스트들은 이 도전적인 시도를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 수많은 드로잉과 아이디어 회의의 무게를 견뎌, 작품의 완성도를 높여 나갔다. 작품은 제작기간만 3년이 걸렸다. 전시관에 있는 수많은 컨셉 아트들과 스토리 스케치들을 보면, 그 노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대략적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번 월트디즈니 특별전에서는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숨겨진 매력들을 찾아볼 수 있다. 무엇보다 디즈니사의 애니메이션들을 만든 것은 아티스트들의 재능보다 그 뒤에 숨겨진 창조적인 이야기 구성과 수많은 시행착오, 그리고 그들의 도전 정신이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아티스트들이 작업하는 책상, 단편 만화 상영 등등 전시관에는 다양한 볼거리가 전시되었다. 전시된 작품들을 부담없이 재미있게 감상하는 것도 좋은 추억이 될 것이다.

전시는 9월 25일까지 계속되며, 성인 1인당 1만 4천원, 단체로는 1만 2천원의 입장료를 내면 관람이 가능하다.

<월트 디즈니 특별전 정보> 월트 디즈니 특별전
http://www.dcxhibition.com/
박종민 기자 jongmin@hansung.ac.kr



<127시간>

이토록 뜨거운 127시간



<127시간>은 대니 보일의 인장이 명확하게 박힌 영화다. 리드미컬한 카메라 워크, 플러코스터로 안내하는 듯한 환란한 편집과 인상적인 화면 색조. 저 순간에 어떻게 저런 음악을 쓸 수 있을까, 싶은 음악 선곡의 대범함까지. 3D 입체 영화보다 리얼하고 역동적인 순간이 <127시간> 안에 있다. 러닝타임이 127시간이 아니라 93분인 게 아까울 정도라고 하면, 너무 호 사스러운 극찬일까.

2003년, 미국 유타주 블루 존 캐년. 험곡을 타다가 밀로 추락한 아론 랠스톤(제임스 프랭코)은 바위 사이에 오른팔에 끼여 움직일 수 없는 신세가 된다. 그가 가진 거대한 500ml 물 한통, 캠프다, 낚은 로프, 헤드랜턴 그리고 싸구려 중국제 나이프 뿐. 이제 악몽 같은 127시간. 혹은 그의 인생을 뒤 바뀔 127시간이 시작된다.

<127시간>은 조난당한 한 남자, 아론 랠스톤의 파란만장 127시간이다. 이 이야기는 실화다. 극적으로 살아남은 그는 언론에 소개되며 유명인이 됐다. 책도 발간했다. 한마디로 너무 잘 알려진 이야기. 극영화로 제작되기에 실화라는 것 자체가 스포일러다. 좁은 공간·한정된 인물이라는 제한 조건을 역시 극영화로서의 재미를 담보할 수 있을까란 의문을 준다. (실제 주인공 아론 랠스톤은 <127시간>가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지길 희망했다.) 하지만 대니 보일의 생각은 달랐다. 대니 보일은 협곡에 고립된 남자에게서 역

선 영화의 밑그림을 그린다. 그게 가능할까? 놀랍지만, 가능했다. 대니 보일은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는 인물을 대신해, 카메라에 무제한의 자유를 부여한다. 익스트림 롱 쇼트의 극단적인 클로즈업이 유연하게 오가며 긴장을 유발한다. 화면을 부지불식간 쪼개는 분할화면은 정적인 공기를 역동적으로 바꾼다. 현실과 판타지를 잇는 편집은 에너지 넘치는 사스러운 극찬일까.

하지만 이 영화를 진정 돋보이게 하는 것은 극한의 상황에 놓인 아론의 고통을 대하는 방식이다. 영화는 이 운수 없는 남자를 동정하지 않는다. 영웅처럼 찬미하지도 않는다. 대신 싸구려 중국제 나이프 앞에서 투덜거리는 모습과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도 유쾌하게 'TV 토크쇼' 사회자 흥내를 내는 모습과, 캠프다 영상 속 여자들을 보며 자위를 시도하려는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 줄 뿐이다. 최악의 상황에서 우머를 잃지 않는 모습에서 절망의 희망으로 바뀌는 127시간 속에서 영화는 인간 내면의 희노애락을 섬세하게 짚어낸다.

127시간은 아론 랠스톤에게 어떤 시간으로 남아 있을까. 꿈에서라도 생각하고 싶지 않은 악몽 같은 시간? 허기와 추위에 싸워야 했던 고통의 시간? 아마,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 줬던 가장 뜨거운 시간으로 남아 있지 않을까 싶다. 영화는 그 뜨거운 시간에 대한 찬가다.

글·정시우 (무비스트 기자)

Diamond Records

<Sgt. Pepper's Lonely Hearts Club Band (폐퍼 상사의 외로운 가슴들의 클럽 밴드)>



비틀즈(The Beatles)는 존 레논(John Lennon), 폴 매카트니(Paul McCartney), 조지 해리슨(George Harrison), 링고 스타(Ringo Star)로 이루어진 영국의 4인조 록 밴드이다. 탁월한 실력과 폭넓은 음악적 역량으로 당대 최고의 인기를 누렸으며, 1964년부터는 <Meet the Beatles> 등의 앨범으로 미국 진출에 성공해, '브리타시 인

베이션'의 포문을 열었다. 이때 비틀즈의 인기는 절정에 달해 있었는데, 심지어 빌보드 차트 1위에서 5위까지 모두 비틀즈의 곡으로 채워지는 기현상이 연출되기도 했다.

그랬던 비틀즈에게 위기가 찾아왔다. 존 레논의 예수 발언* 때문으로 인해 콘서트를 열 수 없게 되어버린 것이다. 이제 이들에게 남은 것은 뛰어난 앨범으로 대중을 사로잡는 것뿐이었고, 자신들의 모든 역량을 앨범작업에 쏟아부었다.

그렇게 탄생한 앨범이 바로 <Sgt. Pepper's Lonely Hearts Club Band(폐퍼 상사의 외로운 가슴들의 클럽 밴드)>였다. 콘셉트 앨범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앨범에서 비틀즈는 단 한 곡도 싱글로 발표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앨범은 잘 팔려나갔고, 빌보드 앨범차트에 3년간 머무르는 기록을 세웠다.

이전까지의 곡들이 대부분 경쾌한 곡들

이 있다면 이 앨범의 곡들은 전반적으로 몽환적인 느낌이 강하다. 실제로 비틀즈는 이런 느낌을 위해서 4명 모두 마약을 취한 상태로 곡을 만들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앨범에 있는 많은 곡들이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는데, 그 중 가장 큰 논란이 되었던 것은 'Lucy in the Sky with Diamonds(루시는 다 이아몬드와 하늘에)'라는 곡이었다. 공교롭게도 이 노래의 이니셜을 따낸 LSD가 되는데, 이는 마약의 이름과 동일해 곡 자체가 마약을 뜻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해석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런 몽환적인 분위기는 60년대 유행했던 사이키델릭 록에서 착안된 것이었다. 평론가들은 음악적 동향을 잘 읽어낸 비틀즈의 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앨범의 마지막 곡인 'A Day in the Life(하루의 일상)'는 오케스트라의 의도된 불협화음으로 사이키델릭 특유의 묘한 불안감과 위기감을 극적으로 연출해 최고의 찬사를 받았다.

이 앨범은 후에 만들어진 <The Beatles(비틀즈)>, <Abbey Road(에비로드)> 등의 앨범이 나올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또한 다양한 효과음의 사용 등으로 록이 여러 갈래로 발전하는데 큰 가능성을 제시했다. 때문에 지금도 많은 평론가들이 20세기 최고의 앨범으로 이 앨범을 꼽고 있다.

*브리타시 인베이션: '영국의 침략'이라는 뜻으로 영국의 밴드음악이 미국의 음반 시장을 장악한 현상을 일컫는다. 이때 인기를 얻었던 대표적인 영국 밴드로는 비틀즈, 롤링스톤즈 등이 있다.

**존 레논의 예수 발언: 존 레논이 공식 석상에서 "지금은 우리가 예수보다 인기가 있습니다"라는 발언을 한 사건. 기독교를 신봉하는 영국에서 이는 용납할 수 없는 발언이었다.

박종민 기자 jongmin@hansung.ac.kr

사진이야기



올해 제가 아는 많은 사람이 즐겁고, 취직 하고 또 병할 하더군요. 그런 모습을 보며 즐겁음을 잃은 저는 머리속이 복잡하고 어지러워졌습니다. 이 사진은 이렇게 그냥 졸업했다가는 이도저도 아니게 될거라는 생각에 불안해 하면서 돌아다니다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은 제 휴대전화의 배경화면으로 지정해두고 다닙니다. 복잡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저 활력 넘치는 저의 청춘도 아름답게 피어나길 바라는 마음에서..

권기수(한국어문 4)